

11월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3926.59	↑ 코스닥	912.67
	(-60.32)		(+32.61)
↓ 금리 (국고채 9년)	2.991	↑ 환율 (원·달러)	1466.80
	(-0.022)		(+1.90)

m-커버스토리

# 3연속 규제에도 ‘상승 랠리’ 내년 수도권 집값 더 오른다

## 약발 안먹히는 정부 대책

전국 매매가 13주 연속 올라  
서울은 송파구 중심 43주째 ↑  
내년 수도권 2%대 상승 전망  
전세가격도 4%나 급등 예측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지정 등 가능한 주요 억제책을 모두 동원하고, 대규모 공급 방안도 내놴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도 되지 않아 6·27(대출규제), 9·7(공급 확대), 10·15(규제지역 확대) 대책 등 세 번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연내 추가 대책이 다시 예고됐다.

〈관련기사 3면〉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마지막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24일 기준으로 0.06% 올라 1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0%, 0.1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민간 기관의 통계는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

로 1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0.27% 올랐다. 43주 연속 상승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11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다. 서울은 0.35%나 뛰었다.

6·27 대책으로 대출을 조였고, 9·7 대책으로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역시 약효는 오래가지 않았다.

추가 공급 대책 예고에도 내년엔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더 오를 것 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을 기념한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올해(-0.8%)에 이어 내년에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지만 수도

권 집값이 2.0% 올라 올해(1.5%)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셋값은 전국이 4%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측면에서는 최근 건설기성 및 3년 전 착공물량 감소에 따라 공급 부족 압력이 누적돼 올해보다 가격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억제책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가 ‘2026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하는 5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 대비 상승 전망이 3%포인트(p) 더 상승해 문제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하반기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745.0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3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4원 오른 1812.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5.3원 높아진 1721.8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30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뉴스1

## 휘발유 가격 25개월來 최고 에너지 수입물가 급등 우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쳐 제조업 부담  
OPEC+ 결정이 유가 향방 가를 듯

국내 휘발유 가격이 최근 2년1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며 에너지 수입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국제유가가 추이다. 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이 모인 OPEC+는 증산을 결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식론 확산에 따라 유가가 하방 흐름을 지속한다 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1746.5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0월31일(1746.62원) 이후 25개월 사이 최고치다.

지난달 하순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달 10일(1700.33원) 1700원대에 진입한 후 그로부터 2주 뒤인 24일(1744.72원) 1700원대 중반까지 안착했다.

전 저점인 올해 6월12일의 1626.99원에 비해서는 이날까지 5개월여 만에 7.34%(119.57원)나 뛰었다.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요인 중 하나로 유류세 인하분의 점진적 환원이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11월1일 이후 기존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기준 10%에서 7%로 낮

춰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류세가 ℓ당 10월 말 738원에서 11월 초부터 763원으로 25원 올랐다. 중형세단 기준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가득 채우면(60ℓ 내외) 한 달 전보다 1500원쯤 더 지불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달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조업 등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계 역시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 등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이 지속 상승했으나 다음 주에는 국제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해 환율 상승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가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경유는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최근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이와는 2~3주의 시차를 보이는 국내에서도 하락 전환할지 주목된다.

문제는 산유국의 움직임이다. 주요 외신과 에너지전문 매체 등은 29일(현지시간) OPEC+가 앞서 결의한 ‘증산의 한시적 중단’ 조치를 그대로 둘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관계없이 내년 1분기 생산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것.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기대감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나 OPEC+가 증산 중단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가 방향성은 관심 대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롯데·신세계 ‘칼바람’, 현대·GS·BGF는 ‘안정’

### 국내 유통 대기업 정기인사

실적부진 롯데 부회장단 전원 옹퇴  
신세계는 계열사 8곳 수장 물갈이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 CJ,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국내 주요 유통 그룹들의 내년도 정기임원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성과주의와 미래 생존을 위한 혁신으로 요약된다. 고물가와 소비 침체 위기 속 기업들은 내년 인사를 통해 성장 전략을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롯데·신세계 “성과 없으면 자리도 없다”

실적 부진에 빠진 롯데와 신세계는 칼바람이 불었다. 신상필벌 원칙 아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롯데는 파격적인 변화를 택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5000억 원을 넘어서며 그룹 유동성 우려의 진원지가 됐다. 롯데쇼핑은 백화점이 외국인 매출로 호실적을 거뒀지만 롯데마트와 슈퍼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부회장단 4명이 전원 옹퇴하고, 전체 계열사 CEO의 30%인 20명을 교체했다. 특히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 1975년생인 정현석 부사장을 파격 발탁하며 순혈주의와 연공서열 타파를 선언했다.

신세계는 정용진·정유경 회장 남매 체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계열사 8곳

수장을 교체했다. SSG닷컴·G마켓 등 이커머스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인적 쇄신의 주된 배경이 됐다. G마켓 대표에 알리바바 출신인 40대 제임스 장(장승환)을 영입하고,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2부문 대표에 1985년생 이승민 대표를 선임하는 등 젊은 인재 수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현대·GS·BGF, 안정 속 핀셋 쇄신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낸 현대백화점그룹과 GS리테일, BGF리테일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 주력 계열사 CEO를 대부분 유임시키며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되, 필요한 곳에는 젊은 피를 수혈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핀셋 인사를 단행했다.

〈4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

### 메트로 한줄뉴스



▲장경태 “추행 없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대장동 국정조사, 피하는 자가 범인”

▲90일만에 공개석상 김주애… 등장일수는 김정은과 비슷  
▲국민의힘, ‘당심 70% 경선룰’ 놓고 당내 이견… 최고위 결정 촉박

▲조국 “한동훈, 국힘 공천 받거나 당권 잡을 기회도 없을 것”  
▲우원식 의장, 계엄 1년 맞아 회고록 ‘넘고 넘어’ 출간



# 국내최고 인증 받고도 개인정보 털려… ISMS-P ‘보안 허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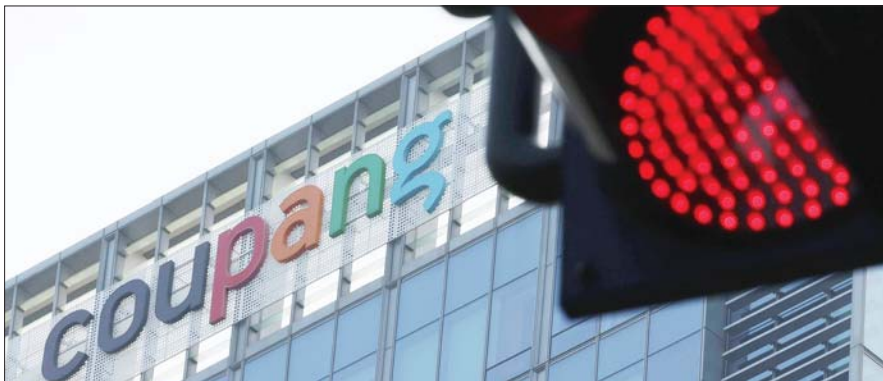
## 현행 인증제도 ‘실효성’

쿠팡, 2021년부터 4차례 유출 사고  
SKT·KT·롯데카드 등 해킹사태  
ISMS-P 제도 구조적 한계 드러나

“100% 해킹 막는것 불가능 전체  
빠른 탐지·복구, 평가에 포함해야”

국가 최고 보안 인증을 들고도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보안 허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유출은 물론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인증이 ‘보안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IT업계 안팎으로 ISMS-P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인 쿠팡은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어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한창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ISMS-P 최초 인증을 획득하고 올해 갱신 심사까지 통과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쿠팡은 의무 대상자다.

문제는 ‘인증’과 ‘실제 보안’의 괴리다. 쿠팡은 인증을 획득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굵직한 유출 사고를 냈다. 2021년에는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테스트 소홀로 14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

는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시 쿠팡은 “안심번호를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음식점에 그대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판매자 시스템 ‘윙(Wing)’의 로직 오류로 2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급기야 이번 달에는 내부자에 의해 무려 3370만 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마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쿠팡의 내부자 유출 사태에 앞서서는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이 ISMS-P 인증을 획득하고도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어 일어난 ISMS-P 인증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ISMS-P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인증이 ‘스냅샷’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ISMS-P는 심사받는 그 시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IT 환경은 매일 변하고 해킹 기법은 진화한다. 롯데카드가 ISMS-P 인증을 받은 바로 다음 날 해킹을 당한 사례나, 통신3사가 모두 인증을 보유하고도 털린 사례는 인증이 ‘지속적인 보안’을 담보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둘째, ‘형식적 체크리스트’ 심사의 한계다. 현재 심사는 101개의 항목을 서류와 인터뷰 위주로 점검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심사원들이 보안 전문성은 있지만, 각 기업의 특수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프라 깊숙한 곳의 허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 사례처럼 정책상으로는 ‘보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실제 시스템 운영단에서 구멍이 나면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셋째, 기업들의 ‘면피용’ 인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

르면 최근 5년간 ISMS-P 인증을 받고도 유출 사고로 징계받은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많은 기업이 인증 획득을 ‘보안 투자의 끝’으로 인식하거나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을 비롯한 13개 기업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72시간 내 신고’조차 지키지 않았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에서는 ISMS-P가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체도가 기업 보안의 ‘최소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까지 이어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안정적 성장’ BNK금융, 빈대인 연임 유력

임추위, 차기 CEO후보군 4명 압축  
심층면접 거쳐 8일 최종후보자 추천

BNK금융 임추위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한 가운데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BNK금융이 ‘빈대인 체제’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해양수도권 조성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에 발맞춰 지역중심의 투자를 적극 확대중인 만큼 BNK금융 임추위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2차 후보군 명단(숫리스트)을 확정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BNK금융 임추위는 2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논의를 거쳐 12월8일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

다. 최종 후보자는 이후 이사회 인준을 거쳐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BNK금융그룹을 이끌게 된다. BNK금융지주가 내규상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만큼,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BNK금융그룹에서 30년의 경력을 쌓은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을 포함해 사실상 ‘내부 후보자’ 4명의 경쟁 구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각 계열사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지속중인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 대표가 ‘빈대인 체제’에서 임명된 인물인 만큼, 리더십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체제 지속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방성빈 은행장과 김성주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각각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한 빈대인 회장의 첫 인선이었다. 방 은행장과 김 대표는 이후 BNK금융 계열사의 안정적인 성과를 이끌었고, 올해 초에는 각각 1년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빈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다면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두 사람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비(非) 현직으로는 유일하게 숫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안감찬 전 BNK부산은행장이다. 다만 안 전 은행장은 지난 2022년 임추위에서도 빈대인 회장과 경쟁했던 만큼,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한 빈대인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롯데, 오늘부터 예측가능 수시채용 시작

계열사별 3·6·9·12월 채용 진행

롯데가 오는 12월 1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을 3, 6, 9, 12월에 맞춰 진행하는 롯데의 차별화된 채용 방식이다.

이번 채용에는 롯데바이오토크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 마케팅, 상품기획(MD) 등 30여 개 직무다.

특히롯데홈쇼핑은 실무 중심의 아이엠(I'M) 전형을 통해 PD 직무 인재를

선발한다. 직무 관련 경험이 담긴 포트폴리오 평가와 현장 오디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는 채용 기간에 맞춰 오프라인 채용 상담 행사도 연다. 12월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5 윈터 롯데 잡카페를 개최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폴란드 신형 잠수함 3척 수주 탈락 K-원팀, 캐나다 CPSP 사업 ‘위태’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획득 사업(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탈락하면서 K-잠수함 수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다. 수주실패의 원인으로 기술 경쟁 외에도 정치·안보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에서 2000t급 ‘A 26 블레킹급 잠수함’을 내세운 스웨덴 사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르카 프로젝트’ 스웨덴 기업 선정 기술경쟁 외 정치·안보 요인 등 영향 캐나다 60조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절충교역 확대·안보협력 강화 필요

한국은 지난 9월부터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잇달아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막판 후방 지원에 나섰지만 최종 수주에 실패하게 됐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결과 후 시장의 관심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로 이동하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달리 캐나다가 비(非)유럽 국가이지만 이번 사업 역시 NATO 내부 조달 구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서 그간 다수의 잠수함을 연합국에 공급해 오면서 캐나다와도 장기간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독일은 우위를 갖는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212CD 잠수함은 북극 해역 작전이 가능한 최신 디젤 잠수함이다. 캐나다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운용 조건과 부합하고 NATO 표준 장비와의 완전한 호환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3척이 전부로, 북극 해양 운용 능력은 추가적인 임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외교·산업 협력을 결합한 절충교역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독일 해군은 올해 캐나다제 수상함 전투체계 ‘CMS 330’를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 빠른 건조 기간, 기술 이전 범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은 빠른 납기 제공, 현지 조선소 및 부품 생태계 구축,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일괄 제공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을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잠수함이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캐나다의 전력 공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본다.

다만 캐나다 수주전을 위해서는 기술·가격 요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독일이 외교·산업·안보 협력을 연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캐나 다산 민수 항공기·무기 구매, 공동 개발·투자 기반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 절충교역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규제 중심 정책에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수도권 등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커질 것”



##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초강력 규제책은 수요를 오히려 핵심지역으로 쏠리게 했고, 기존 공급 물량마저 증발시켰다.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몇 년간 안정됐던 전세 시장도 들쭉이기 시작했고, 비규제지역과 오피스텔이 부각되는 등 ‘풍선효과’도 막지 못했다.

### ◆ 공급 확대 외쳤지만…신뢰 잃은 정부

2021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물량은 10만3390호로 전년 동기(19만1424호)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기당 10만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도심 내 정비 사업 등 규제에 발 묶여 내년 입주물량 전년 절반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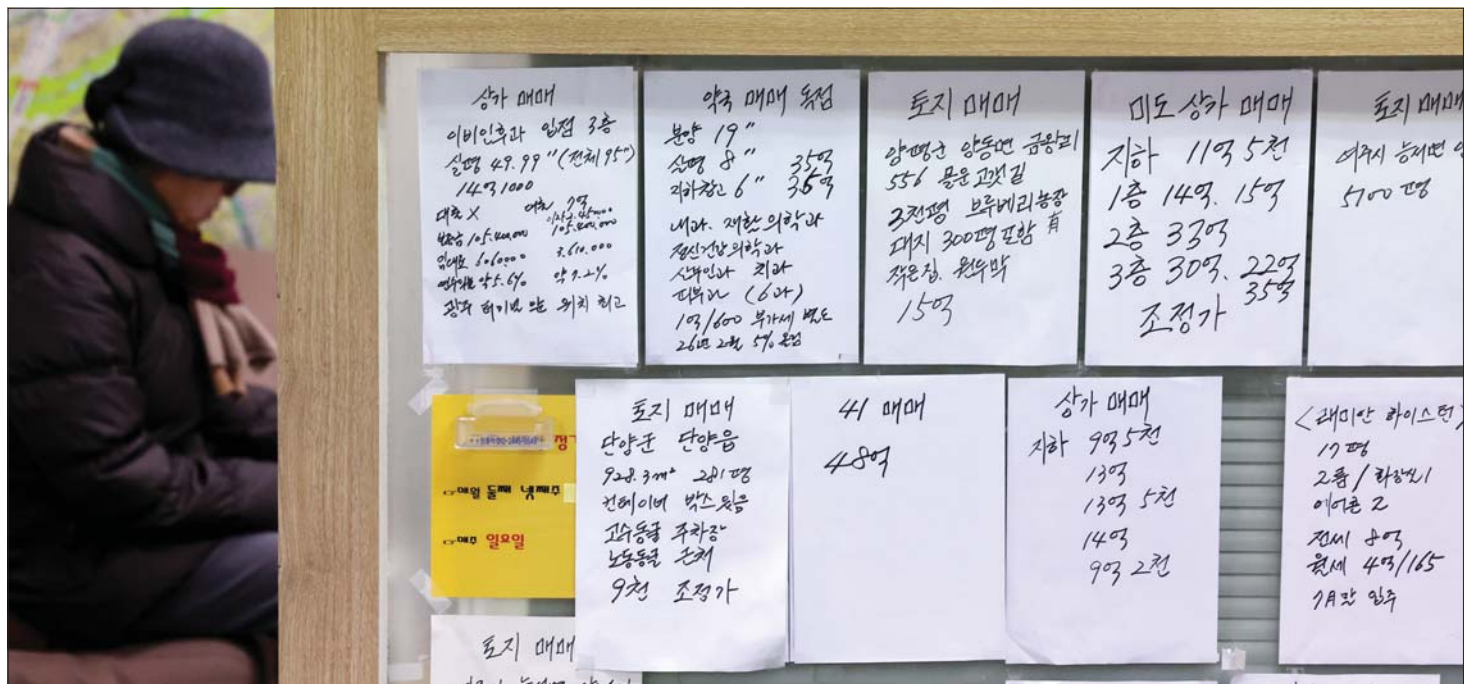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차는 차치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만 강조했고, 그간 공급 비중이 높았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후속조치로도 공공주택 공급만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3881호) ▲남양주왕숙(1868호) ▲인천 계양(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600호) ▲평택고덕(5134호) ▲화성동탄2(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1305호) ▲구리갈매역세권(287호) ▲검암역세권(1190호) 등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팩스파인더전문위원은 “그동안 지연되던 공공택지 공급 일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



지난 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5주(10월16일~11월20일)간 서울 아파트 신규 월세 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는 2870건으로 전체(5166건)의 5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5주(9월10일~10월15일)간 월세 거래 51.2% 보다 약 한 달 만에 비중이 4.4%포인트(p) 확대됐다.

/뉴시스

지만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은 서울 내부의 공급 부족”이라며 “이번 발표는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고 서울은 고덕강일 1곳에 그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초구서리 풀지구 2만 호, 과천지구 1만 호 등 좋은 입지에 대한 공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급은 빨라도 2029년 이후다. 실제 분양까지 최소 3~4년, 입주까지는 5~6년 이상 소요된다.

### ◆ 수요 누르려다 공급 더 줄여

도심 내 가장 유용한 공급방안인 정비사업은 규제에 발이 묶였다. 특히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한 10·15 대책의 타격이 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27 대책 이후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었고, 10·15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축소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됐다”며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방향

향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문위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단순한 투기 억제 장치에 아니라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인 자금·거래·분양을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 집값 잡으려다 임대차 시장 불통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이 진짜 영향을 미친 곳은 임대차 시장이다. 전세 물량은 귀해졌고, 전·월세 모두 가격이 뛰고 있다. 입주 물량 자체도 줄었는데 실거주 규제로 체감 물량은 증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1월 1일 3만1814건에서 지난달 14일 기준 2만6335건으로 17.2%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월(0.39%)에 이어 11월에도 0.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시장 전망치에서도 매매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차단되면서 실입

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채감되는 신축아파트 전세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전세 긴 매매’가 막히면서 전세매물이 빠르게 증발했고, 전세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겹치자 세입자들의 재계약 비중이 늘며 매물 잠금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초강력 규제에 임대차 시장 요동 전세 매물 줄고 가격 상승폭 커져 월세 비중 66%… 통계 이래 최고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됐다.

올해 8월기준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6.0%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매매가 대비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오피스텔 월세도 같이 올랐다.

윤 랩장은 “내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전월세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반전세나 월세가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무주택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AI·환율·금리 삼중 악재… 外人 16조 이탈, 산타렐리 ‘흔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집중 매도  
원화 약세로 외국인 수급 불안  
금리부담에 성장주 약세 이어져  
개인 매수 유입되며 지수 방어  
연말 랠리 기대감 약화 기조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증시를 가파르게 밀어 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6조 3530억원을 순매도했다. 월간 외국인 순매도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최근까지도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증시가 리레이팅(재평가)되고 있다” “코스피 6000도 가능하다”고 하더니, 왜 돌변한 걸까. 12월 ‘산타 랠리’는 물 건너간 것일까.

## ◆외국인 빈자리 개인이 메워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7028억원 순매도 했다. 11월 한달간 16조원 넘게 팔아치운 영향이다.

‘AI(인공지능) 거품론’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10월 24일(미국시간)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니 3.0이 인공지능(AI)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 이미지.

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거품 우려는 여전하다. 같은 달 4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최고 경영자)는 홍콩 금융 서밋에서 “기술주 거품이 상당해 향후 12~24개월 내 주식 시장이 10~20%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도 “10~15% 조정은 오히려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SK하이닉

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이 이탈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0조 44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 순매도액도 2조 2642억원으로 둘째로 많았다.

환율 급등(원화 약세)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새벽 2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오른 1466.80원에 마감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춤했

만, 최근 한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기록했다. 헤지펀드 등 외국인 단기 투자 자금은 환차손에 민감하다.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 현상도 주식시장엔 부담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8일 3.344%로 마감했다. 장기 금리 상승은 성장주나 고평가된 기술주의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외국인의 빈자리는 개인이 메웠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탈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939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냈다. AI 거품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한 틈을 매수 기회로 삼은 것이다.

## ◆금리인하·AI기대감, 산타 랠리 오나

12월 산타랠리는 물 건너간 것일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 NH투자증권은 12월 코스피 상단을 4200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으로 소비 확대감이 커진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글의 ‘제미니 3.0’ 발표 이후 AI 버블 논란이 진정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

어가던 코스피 지수도 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업종의 실적 모멘텀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동시에 해결되는 모습”이라면서 “전통시장 기준 12월(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80%를 상회하며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 구글의 제미니 3.0 공개로 새 성장동력이 가시화하며 AI 우려도 잦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산타의 선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유동성 안정화와 개인 순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지금, 코스닥 랠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전략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개정안도 긍정적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시장에서는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a@metroseoul.co.kr

# 약가 인하 앞두고 제약업계 ‘속내 갈림’… 혁신형 우대에 입장차 뚜렷

정부, 제네릭 약가 40%대 인하 추진  
혁신형·R&D 비중높은 기업우대 확대  
제네릭 중심 중소사는 ‘직격타’ 우려  
대형·중소 제약사 간 이해 차이 심화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에 나서며, 제약업계가 2012년 이후 또 한번의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는 제네릭(복제의약품)에 의존한 매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신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손실을 마주해야 하는 기업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업계는 대척점에 서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대가 주어지는 만큼, 기업들 간 대응이 첨예하게 나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



Chat GPT로 생성한 정부가 복제약 약가인하와 혁신 성과 도출을 표현한 이미지.

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제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편은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강화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관리 합리화가 핵심이다.

향후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 2012년 제네릭 및 특허만료 신약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한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수술이다. 다만, 2012년과 달리 이번 약가 인하는 내년 1분기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즉각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우선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여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과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번 약가 제도가 ‘채찍’만큼 ‘당근’도 명확한 만큼 일방적인 입장 정

립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혁신 기업에 대한 혜택은 강화했다. 혁신형 제약사가 첫 제네릭을 등재할 경우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제네릭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대비 R&D 비율이 상위 30%인 기업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68%까지 적용받는다. 또한 오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제네릭 비중이 높은 경우엔 큰 타격이 미치는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다를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제약사들의 대형화로의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13년 전과 비교하면 R&D와 신약개발에 공 들이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R&D 생태계가 필요한 공감대는 훨씬 큰 상황”이라며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는다는 부담감은 모두에게 있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정부의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은 탓이다. 회사들 가운데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동의하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회사들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 전달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오너 2·3세 전진·AI전환 강화… ‘미래형 인사’ 돌입

》 1면 ‘롯데·신세계 칼바람…’서 계속

안정 유지하며 체질 개선 박차  
조직 슬림화·미래전략팀 확대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유임시키는 한편 민왕일 부사장을 현대리바트 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리바트가 올해 3분기 매출 304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하락

하며 부진하자 나선 조치다.

편의점 양강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을 택했다. 양 사는 민생회복 쿠폰 수혜를 입으며 3분기 실적 회복에 성공했다. GS리테일은 취임 1년을 맞은 허서홍 대표 체제에 힘을 실으며 큰 변화 없이 임원 인사를 마무리했다. BGF리테일 역시 민승배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7080·여성 부상… 오너家 ‘전진’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교체와 여성 인재의 약진이다. 롯데와 신세계뿐만 아니라 CJ, 현대백화점 등 전 그룹에서 1970·80년대생 리더들이 경영전면에 등장했다.

CJ그룹은 CEO 교체 폭은 크지 않았지만, 신입 임원의 45%를 1980년대생 이후 출생자로 채우며 ‘젊은 CJ’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했다. CJ그룹은 신입 임원 중 여성 임원이 11명으로 역대 최대 비율인 27.5%를 기록했다. 롯데는 신

동빈 회장의 장남이자 39세인 신유열 부사장이 롯데바이오토크스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미래기획실장이 미래기획그룹장을 맡게 된다. 기업의 중장기 성장 계획과 신사업을 총괄하며 그룹 내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효율성을 중점에 둔 조직 개편과 AI 도입으로 미래 기술 발전에 나섰다. 비대해진 조직의 군살을 빼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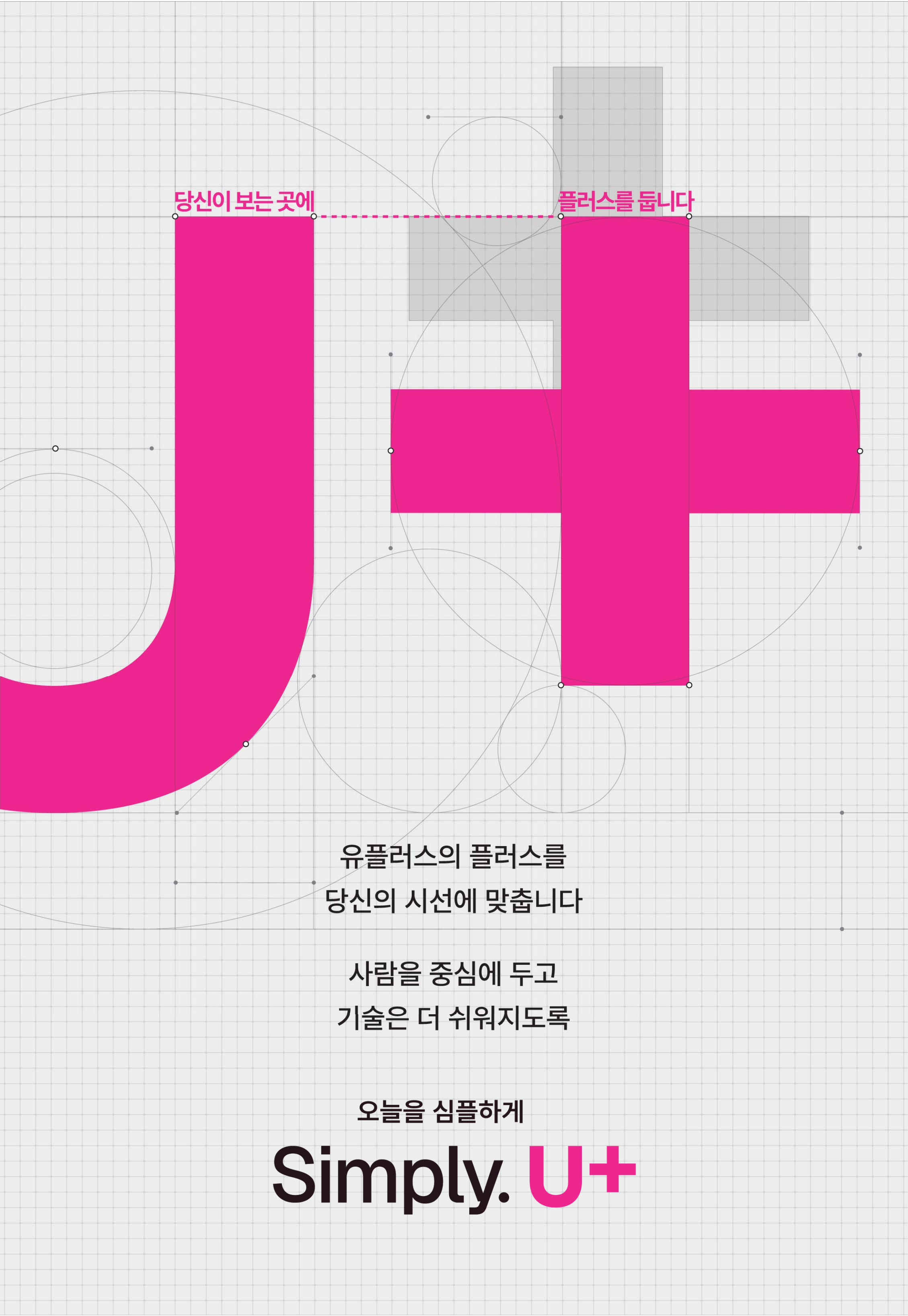
롯데그룹은 옥상옥 지적을 받아온 지

주사내 ‘헤드쿼터(HQ)’ 체제를 전격 폐지하고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CJ그룹 역시 지주사 조직을 통합·재편하여 중복 업무를 없애고 의사결정의 단계를 줄였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조직 신설도 이어졌다. GS리테일은 DX(디지털전환)본부를 ‘AX(AI 전환)본부’로 격상해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며, BGF리테일은 전략혁신부문 직속으로 운영하던 BI(경영 혁신) 팀을 미래전략팀으로 개편해 리테일 테크 등 데이터 기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유플러스의 플러스를  
당신의 시선에 맞춥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은 더 쉬워지도록

오늘을 심플하게  
Simply. **U+**



#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코앞… 100여건 쟁점에 협상 난항

與野, ‘2+2’ 회동에도 간극 못 좁혀  
법인세,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등  
원내대표 간 추가 회동서 논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이견도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쟁점에 양측의 대한 간극이 커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민기본소득, AI(인공지능) 관련 사업 등 100여건의 구체적 내년도 예산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예산안 협상을 위해 ‘2+2’ 회동을 가졌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산안과 관련해선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예결위 간사 간 점점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좀더 좁히고 난 뒤에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대규모 금융·보험업 교육세 2배 인상안도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든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내린 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제일 낮은 과표구간(2억원 이하)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0.5%로 고정된 교육세를 1조원 이상 수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1%를 거둬 미래 인재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추가 납부한 조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실천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거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건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국민의힘, ‘비상계엄 1년 사과’ 두고 내홍 극심

양향자 “계엄은 불법… 반성해야”  
오세훈 “중도층 얻으려면 사과해야

내부 결집 입장도… 사과 실익 없어  
장동혁 “결과적으로 혼란·고통 드러”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1년 사과’ 여부와 수위를 놓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측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집권 시절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 장외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반복적 사과는 이익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 CGV대구 한일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높이는 최고위원까지 등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되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같은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 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

당이 되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고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 20여명과 함께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뛴 ‘선수’들은 더 다급한 모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힘을 보탰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에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

리”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과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은 내부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며 사과한 바 있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등 사과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에게 사과를 촉구한 적 있느냐”며 “본인들이 사과했을 때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었다. 왜 계속 쪼든 방식을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지도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막판까지 사과 여부나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

## 조승래, 국민의힘 향해 “헌법·정치적 해산 겪을 것”

〈민주당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과 커녕 내란 옹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강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둔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이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감



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는데, 헌법재판소의 과면 결정과 대선을 통해 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세월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내란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린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장외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

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제1야당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 세력과 사익 추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속 재판 진행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

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타임라인을 묻는 질문에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종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돼 있어서 크게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란재판 중 가장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며 “감찰에 대해선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통장정리부터 연금수령까지…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 점포

## 은행 지점의 재구성

### KB시니어라운지

고령인구 많은 5개 행정구 대상  
노인복지센터서 은행업무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 상담 강화도  
생체인증 도입해 안전성 제고

1평 남짓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선다. 이날 보는 은행 업무는 통장 정리, 연금 수령 그리고 주중에 온 문자 상담이다. 보이스 피싱,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늘면서 전화나 문자를 받은 어르신들이 기다렸다가 상담하러 찾아온다.

지난 24일 오후 1시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 문을 연 'KB시니어라운지'를 찾았다. KB시니어라운지는 대형 뱅으로 고령층이 많이 찾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업무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다. KB시니어라운지는 2022년 서울내 고령인구가 많은 5개 행정구(강서·구로·노원·은평·중랑)를 대상으로 운영하다 2024년 인천 5개 행정구(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로 확대했다. 월요일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화요일 미추홀구, 수요일 부평구, 목요일 남동구, 금요일 중구에 위치한 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어서오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을



지난 11월24일 인천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 문을 연 'KB시니어라운지'에서 한 어르신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KB국민은행·나유리 기자

까요?”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물었다. 1평 남짓한 공간에는 상담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고객이 안내 글을 서명할 수 있는 태블릿, 생체 인식 기기 등이 있었다. 임시 장소라기 보다는 맞춤형 은행 같은 느낌이었다.

“계좌 개설좀 하려구요.”

‘신규 가입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은행직원은 주민등록증을 받고 자

판을 두드렸다. KB시니어라운지는 현금 및 수표 입출금과 통장 정리, 재발행, 연금 수령 등이 가능했다.

은행 직원은 “어르신들은 보통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통장 정리를 자주하러 오신다”면서 “복지센터에 오는 김에 연금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화나 문자로 온 보이스 피싱, 스미싱 상담도 한다. 어르신의 경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드문 만큼 매주 복지센터에서 보이는 은행 직원에게 묻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경찰서, 검찰, 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면 바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이스 피싱의 경우 그런 점을 악용해 자주 이용한다고 금융 교육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의심되는 문자 등을 물어오면 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니어라운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생체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다. 은행 업무를 보기위해선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잊고 가져오지 않거나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손바닥 정맥 인증(생체 인증)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며 “대포통장 피해나 스미싱 피해도 막을 수 있어 예방을 위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시니어라운지는 지점이 어떤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객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점을 재구성해 1대 1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KB시니어라운지는 금융의 중심에서 벗어날 뻔한 고객의 금융 접근권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

## 보험 브리핑

### 신한라이프

### 유연근무·반반차 등 일·생활 균형 ‘우수’

신한라이프는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주요 정부 부처 및 경제 단체 주최 ‘2025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유연근무제, PC-OFF 제도, 반반차 제도, 연차 자기결재 시스템 등 직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전체 직원의 과반이 활용해 근무 자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생활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 교보생명-서울경찰청

### 실종예방 사전등록 등 취약층 보호지원 맞손

교보생명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취약계층 보호와 사회복지사 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달 5일 서울경찰청과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보호·치매보험가입자는 실종예방지문 등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매월 1.0~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 확산을 위해 재무설계사(FP) 조직 중심의 현장 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달 전국 전속 FP에게 안내 전단지 8만 부를 배포해 고객 방문 및 상담 과정에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가정에 사전등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등록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 KB라이프-강남세움복지관

### 강남구 독거 어르신에 방한용품 꾸러미 전달

KB라이프는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27일 강남세움복지관과 함께 강남구 독거 어르신을 위한 ‘겨울 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KB 라이프 희망드림 봉사단 2기’의 세 번째 대면 행사로 KB라이프 임직원 9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방한용품 꾸러미 제작 ▲창문 단열재 부착 ▲가정 방문을 통한 꾸러미 전달 및 정서적 지원 등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임직원들은 2인 1조로 인근 임대아파트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준비한 방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창문 단열재를 부착했다. /김주형 기자

# 양종희 “도전·문제 해결자로 AI와 함께 미래 준비”

(KB금융그룹 회장)

###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 AI 최신 AI 기술·에이전트 경험 공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새로운 기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에게는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를 준다”며 “우리 개발자들도 ‘도전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자’로서 AI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1월2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한관에서 열린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PLAY with) AI’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양 회장과 이창권 KB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을 비롯해 전 계열사 대표가 참석했다.

KB테크포럼은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그룹 최대 기술 공유 행사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한 이날 포럼에는 KB국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제7회 KB테크포럼 플레이 위드(PLAY with) AI 행사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KB금융그룹

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전 계열사의 테크·AI·디지털 부문 임직원과 마이크로소프트·AWS·LG CNS 등 주요 파트너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현업 적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의 슬로건은 ‘AI와 함께 실행하고(Play) 학습하며(Learn) 발전하

는(Advance) 당신(You)’이었다. 최신 AI 기술과 AI 에이전트를 직접 경험하고 활용해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KB금융에서는 ‘KB 에이전트 시연’, ‘바이트코딩 체험 존’ 등 부스를 운영하고, 주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 AWS, LG CNS에서는 ‘AI코딩’ 등 부

스 운영을 통해 각 계열사 직원들이 최신 기술을 직접 느끼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직원이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현장 라이브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양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개발자세션 I·II(AI 에이전트, 테크·AI)와 ▲파트너세션으로 진행됐다.

KB금융은 개발자세션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행 경험을 나누는 데 주력했다. ▲PB 에이전트 개발 사례 ▲AI 기반 인프라 자동화 도구 개발 사례 ▲생성형 AI 기반 보험서류 OCR 솔루션 개발 사례 등 최신 기술의 실무 적용 사례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파트너세션에서는 KB금융과 함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략 ▲AI 기반 개발 기술의 미래 등을 각 계열사 개발자들과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2월 첫째 주 전국 14곳서 1만여 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7799가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

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일원에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동, 총 1912가구 중 전용면적 46~84㎡, 9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경기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

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유승건설·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501가구 규모다. 단지 앞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안상미 기자



# 삼성·LG ‘로봇청소기’ 기술·보안 강화… 中 저가공세 대응

삼성·LG 접근권한 설정 등 마련  
직배수·사물인식 등 역량 개선

中 나르와르 드리미·에코백스  
인증절차 미비, 불법접근 가능성

중국 가전 기업들이 중저가 공세로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술력과 보안을 앞세운 차세대 제품으로 대응에 나선다. 출시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양사는 2세대 로봇청소기로 시장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형 로봇청소기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5’에서 올해 안으로 신형 로봇청소기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지만 내부 일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시스템’ 이미지. /삼성전자

정 조정으로 출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은 올 1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로봇 청소기 시장점유율은 로보락, 에코백스, 드리미, 샤오미, 아이로봇이 각각 19.3%, 13.6%, 11.3%, 9.

9%, 9.3%를 기록하며 상위 5대 스마트로봇 청소기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 4개 업체는 모두 중국 기업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의 54.1%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플랫폼·보안 기능을 앞세워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로봇청소기에 자체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를 포함해 보안성을 강화한다. LG전자 또한 신제품에 자사 보안 솔루션인 LG실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로봇청소기 제품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중국 업체 대비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조사 대상 제품 중 중국 기업인 나르와르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편의성과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가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올인원 로봇청소기에 자사 제품 최초로 직배수 기능을 추가할 전망이다. 자동직배수 유형과 물통 유형으로 구성해 고객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 신제품 ‘히든스테이션’과 ‘오브제 스테이션’ 2종에 자체 개발한 AI 사물 인식 기술을 적용한다. AI집과 라이더·3D카메라·초음파·범퍼 등 각종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

예물을 정밀하게 인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중국 업체들은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품질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개선되면서 국내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라며 “특히 중국 기업 가운데는 정부 지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기술 투자 여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이 갖기 어려운 브랜드 파워를 적극 부각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안 문제인 만큼 경쟁사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한국GM “대리점·네트워크 강화… 2026년 ‘확장의 해’”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  
판매·협력 서비스 센터 대표 면담

“판매 대리점과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로 2026년은 ‘확장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구스타보 콜로시 영업·서비스·마케팅 총괄 부사장)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고객 만족도 확장을 위해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와 최신 기술 도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와 강장원 한국GM 대리점협의회 회장, 김용호 한국GM 협력 서비스네트워크 협의회 회장은 지난 28일 신촌 대리점에서 전략 회의를 갖고 국내 판매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일각에서 나온 한국GM의 국내 철수설과 달리 내수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콜로시 부사장은 “전국 380여개의 협력 서비스센터가 이미 전체 고객 서비스 물량의 92%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가 지역 서비스센터보다 더 많은 고객 서비스를 제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가운데)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 및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이 지난 28일 웨보레 신촌 대리점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실제 한국GM의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는 2024년 말 기준 91%, 2025년 1~10월 기준 약 92%로 이미 지역 서비스센터보다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GM은 새로운 기술이나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 지역 영업 서비스센터가 담당해왔던 지역에서도 한국GM의 높은 서비스 기준과 고객 신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국GM은 한국능률협회컨

설팅의 KSQI 자동차 A/S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서비스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용호 회장은 “우리 네트워크의 힘은 일관성과 품질에 있다”며 “1회 방문 수리 완료율, 추천 의향 등 주요 고객만족지표는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서비스센터가 담당해왔던 지역에서도 한국GM의 높은 서비스 기준과 고객 신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첨단 기술 도입과 신차 출시로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우선 한국GM은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슈퍼크루즈’를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해 선보인다. 한국GM이 선보인 ‘슈퍼크루즈’는 국내 약 2만 3000km의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전대에 손을 잡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핸즈프리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국내 자율주행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강장원 회장은 “전국 대리점 네트워크들은 성장을 견인하고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대리점의 숙련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사후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한국GM 차량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굳건한 파트너십이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판매를 더욱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 한진그룹 임직원 역량강화 세미나

한진그룹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3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과 한진그룹 소속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등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대응 전략과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연장 법률사무소 권순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기본 개념과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제한 등 개정안의 4대 핵심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 HD현대오일뱅크 스포츠라이트 어워즈 대상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5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포트 부문에서 첫 대상을 받았다. 전체 6개 평가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해 종합 10위에 올랐다.

HD현대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도 ‘2025 인스파이어 어워즈 커스터머스(Customers)’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종합 16위를 기록했다.

LACP어워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평가대회로 전 세계 기업·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유혜은 기자

## 정부·조선사, LNG 화물창 국산화 속도

삼성중공업-한국재료연구원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술협력 강화

30년간 7조원을 해외에 내준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사들이 실증 확대와 소재 자립에 나서고 정부가 12월 한국형 화물창 상용화 로드맵 확정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독점 탈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조선해양 소재 기술 확보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중공업이 현장 수

요 기반 기술 발굴과 실증을, KIMS가 기반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를 맡는 역할 분담 구조다.

양측은 KC-2C(삼성중공업 개발 국산 LNG 화물창) 핵심 소재를 비롯해 초극저온 소재 및 응용기술, 용융염원자로(MSR)용 소재와 제조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LNG 화물창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저장하는 핵심 기술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프랑스 GTT가 설계·인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는 30여년간 해당 기술에 의존해왔다. 지난 30년간 GTT에 지급한 로열티는 7조4000억원에 달하

며, 오는 2029년까지 예정된 162척의 물량까지 고려하면 부담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산화 시도는 20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지난 2004년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첫 국산 모델 KC-1을 개발해 2018년 실선 적용까지 이뤄졌으나 운항 중 콜드스팟(결빙)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업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성능을 개선한 KC-2 시리즈가 개발됐지만 상용화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KC-2B(HD현대중공업 개발 국산 LNG 화물창)를 LNG빙커링선 ‘블루웨일호’에, 삼성중공업은 KC-2C를 자체 실증선 ‘그린누리호’에 적용해 운항 중이다. 다만 해외 선주들의 GTT 선호가 강해 대형 LNG운반선과 해외 선주를 대상으

로 한 본격 상용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증 기반 확충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1~2024년 총 252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한 목포대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에서는 조선 3사와 한국선급, 소재·부품 기업 등이 참여해 한국형 화물창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와제’로 지정하고 2028년 실증 완료, 2030년 국산 화물창 장착 LNG선 수주를 목표로 제시했다. 12월 중 세부 로드맵을 확정된 뒤 정례회의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기업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행정·채용 더뎠던 첫 관문 속에도… 현장은 ‘기회’ 말했다

## 르포

### 日 진출 스타트업들의 도전기

중진공, 도쿄서 GBC·KSC 운영  
49社 입주해 정착·사업화 지원  
비자·은행계좌 개설은 ‘하세월’  
사무실 입지까지 따져야 하는 현실

시장 규모 크고 기술 수준 안정적  
팬덤문화도 발달해 공략할 유망지  
한국어 인재 많고 韓 기업 선호 ↑  
기회 요인 커져 시장성 더욱 분명

지난 26일 오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중진공이 도쿄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에 입주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관계자 5명이 한국에서 온 언론사 취재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나노 분산 유화 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퍼스트랩의 최정환 이사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마이프렌즈의 김보혜 일본법인 부사장 ▲일본 진출 희망 의료기기 회사를 위한 규제·인증 등을 컨설팅하는 엠디텍스 박재현 일본법인장 ▲인공지능(AI) 마케



지난 26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입주기업들과 정하림 소장(맨 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승호 기자

팅 자동화 솔루션 회사 파이온코퍼레이션 정범진 대표 ▲초고속 무선통신 반도체 팹리스사 유니컨 도전석 영업이사가 일본시장에서의 도전기를 담담하게 전달했다.

“일본은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다. 그래서인지 AI 스타트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업을 해 보니 일본은 불편함을 참아야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비스가 수시로 출몰하는 미국과는 많이 다른 나라다.” 정범진 대표의 말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입권 뿐만 아니다. 행정 처리도 참 느리다.

최정환 이사는 “일본은 시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나라여서 우리 비즈니스의

주요 타깃이다. 하지만 은행 거래를 위해 가상계좌를 먼저 열고 실제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전했다. 도전석 이사는 “거주비자를 만드는게 참 어렵더라. 가족비자도 시간이 많이 걸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나라다. 중진공 도쿄 GBC·KSC를 담당하고 있는 정하림 소장은 “일본은 사무공간이 비싸고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까다롭게 고르는 특성이 있다. 이때문에 진출 희망 기업들이 사무공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가 비즈니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면서 “GBC나 KSC 입주기업들이 주소를 이곳(도라노몬)으로 할 수 있

는 것도 여러 장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서울의 강남 테헤란로와 견줄 수 있는 미나토구 도라노몬은 일본의 모리그룹이 개발한 도라노몬힐스, 롯폰기힐스 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건물인 아자부다이힐즈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중진공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GBC와 지난해 5월 새로 문을 연 KSC에는 현재 총 49개의 한국 기업들이 입주, 일본 공략을 위한 체비를 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최대 3년까지 공간뿐만 아니라 현지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업, 파트너 발굴, 인력 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현 법인장은 “일본에서 인력을 채용해 보니 쉽지 않았다. 구직자 우위시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두달을 기다려 2명

을 채용했는데 모두 60대였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한류 때문에 특히 20대 여성 중에선 한국어를 잘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 취업 선호도 역시 높다.

정하림 소장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에게 일본은 기회다. 저출산으로 인력이 줄고 생산성 제고가 핵심인 상황에서 자국 스타트업 육성 의지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유치도 적극적이다. 도쿄도 역시 관련 보조금을 늘리고 있고 은행들도 법인계좌 오픈에 좀더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뭉뚱뚱해도 일본은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겐 꿈의 나라일 수 밖에 없다.

김보혜 부사장은 “일본의 덕질 문화는 매우 성숙해 있다. 객단가는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팬덤 비즈니스에서 일본 시장은 매우 좋다”고 귀띔했다.

한편 중진공에 따르면 도쿄 GBC·KSC 입주사들의 수출은 2021년 584만9000달러에서 625만8000달러(2022년), 618만1000달러(2023년)로 등락을 거듭하다 2024년 1461만9000달러로 늘더니 올해 들어선 9월 현재까지 3021만300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도쿄(일본)=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에이스침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리뉴얼 오픈.

## 에이스침대

### 신세계百貨 강남점 새단장

헤리츠 등 하이엔드 라인업 전시

에이스침대가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새단장하고 다시 열었다.

30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3년 연속 누적 매출 3조 원 이상을 기록한 국내 최상위 리테일 상권이다.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약 20평 규모의 매장을 전면 재정비해 체험 중심의 하이엔드 공간으로 구성했다. 자사 제품 중 최상위 라인업을 가장 완성도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정체성과 기술력을 강조한 고급 쇼룸을 완성했다.

새단장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에이스헤리츠(ACEHERITZ)’ 및 ‘로얄에이스(Royal ACE)’ 라인업을 전시해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했다. 특히 에이스헤리츠는 에이스침대의 60년 기술력에 최상급 소재를 집약해 선보이는 최고급 사양의 브랜드로, 매장에서는 헤리츠 전용 프레임 ‘H-201’과 에이스헤리츠 ‘블랙(Black)’ 매트리스를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차세대 AR시장서 LEDoS 부상 밝기·투과 조건에 기술축 이동

마이크로LED 전사 등 난도 해결관련  
공정 성숙도에 따라 격차 벌어져  
일부 국내 기업서 장비 개발 진행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차세대 AR(증강현실)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휘도·고투과 성능을 갖춘 LEDoS(LED on Silicon) 기술을 기반으로 AR 디스플레이 구조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EDoS는 AR용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LEDoS 채택 비중이 2025년 37% 수준에서 2030년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고휘도·고투과 기반 AR 기기 전략을 강화하고 향후 기술 축이 LEDoS와 LCoS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LEDoS가 빠르게 부상하는 배경에는 증강현실(AR) 기기가 요구하는 고휘도·투과율 조건을 기존 OLEDDoS가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AR 글래스는 실외에서도 정보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수천~수만 니트급 밝기와 높은 광투과율을 필요로 하는데, 유기 발광 구조인 OLEDDoS는 열·재료 특성상 밝기 확보에 제약이 있다.

반면 무기 발광 기반의 마이크로LED를 실리콘 기판 위에서 구동하는 LEDoS는 구조적으로 높은 휘도 구현이 가능해 차세대 정보형 AR 기기에 적합한 광

원 기술로 평가된다.

LEDoS 확산을 위해서는 마이크로LED 칩 균일화·전사·본딩 등 핵심 공정의 난도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AR 기기는 고휘도와 고해상도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마이크로LED 칩을 실리콘 기판 위에 정밀하게 배치하는 전사(Transfer)·본딩(Bonding) 공정의 성숙도가 양산 속도와 제품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향후 LEDoS 시장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공정 성숙도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LEDoS 관련 연구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R 글래스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후보로 microLED 기반 LEDoS 구조를 검토하며 마이크로LED 칩 소형화와 백플레인 집적 등 기초 기술 연구를 추진 중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microLED를 실리콘 기판에 집적하는 LEDoS 구조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croLED 전사·본딩·검사 등 LEDoS 기술과 공정에 적용 가능한 장비 개발 역시 일부 국내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어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LEDoS는 공정 난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글로벌 브랜드의 AR 전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연구개발과 장비 생태계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

## 레미콘공업조합 등 중소기업계, 릴레이 기부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잇따라 전달

중소기업계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릴레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원금 1억 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5000만 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각각 전달했다.

1994년 설립한 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는 전국 20개 회원 조합을 중심으로 전국 레미콘 업계의 공동사업 및 조합원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 경북 산불피해에도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누적 후원금 1억원을 넘어서며 ‘9988사랑나눔미 명장’ 칭호를 받기도 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1981년에 설립해 지난 40년간 정보화 구축에 중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배조용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 사회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매년 회원사가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사랑나눔재단에 기부해 중소기업계의 사회적 책임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벤처協 “닥터나우 방지법” 창업생태계 폭탄

성명내고 국회 법사위 강력 비판  
타다 사태 재발 우려 합리적 요청

벤처업계가 “닥터나우 방지법”은 창업 생태계에 던져질 폭탄”이라고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4년전의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크게 후퇴했는데 벤처업계의 평가다.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엔씨소프트 반등 청신호?... ‘아이온2’ 출시 첫주 매출 250억

일일 활성 이용자 수 150만명 넘어  
PC 결제 약 90%... 수익성 개선 유리

운영 역량, 향후 흥행 지속성 좌우  
대만 출시 앞두고 현지 반응도 주목

엔씨소프트가 신작 ‘아이온2’로 반등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시 첫 주 이용자 지표와 매출 추정치가 기대치를 웃돌며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연이은 신작 부진으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졌던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를 중심으로 전성기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온2는 출시 첫 주 PC와 모바일 플랫폼 합산 매출이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출시 직후부터 서버 대기열이 3만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용자가 몰렸고,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150만명 선을 넘겼다. PC 결제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모바일 마켓 수수료 부담이 적어 회사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



아이온2.

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 이용 지표 역시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캐릭터 생성 수는 252만개를 넘었고 멤버십 구매는 27만개, 외형 아이템 구매 캐릭터는 약 55만개로 집계됐다. 게임 내 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결제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 기반 지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PC 기반 MMORPG 시장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엔씨소

프트의 전통 강점이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다.

아이온2의 성공 여부는 엔씨소프트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직결된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수년간 리니지 형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며 성장 정체 논란에 직면했다. 트릭스터M, 블레이드 앤 소울2 등 신작이 출시 후 빠르게 동력을 잃었고 리니지W 이후 글로벌 확장 전략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이온2가 글로벌 재도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증권가 역시 아이온2의 매출 구조와 이용자 지표를 근거로 전망을 상향하는 분위기다. 일부 증권사는 아이온2 출시 이후 엔씨소프트의 내년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PC 결제 중심의 사업모델 구조가 수익성 회복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일부 유저들은 소비자 보호 관점의 BM 구조를 요구하며 ‘Pay to Win(돈 쓰면 이기는 게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초기 혼잡, 접속 지연, 일부 패키지 구성 등을 놓고 개선 요구가 제기되며 엔씨소프트의 운영 역량이 향후 흥행 지속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스토어 매출 순위가 PC 플랫폼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된 점도 장기 흥행을 위해 넘어야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이탈 방지와 콘텐츠 업데이트 전략이 중요하다. 경쟁작이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초반 흥행을 유지하

려면 대규모 업데이트, 월드 콘텐츠,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경쟁 구조 개선 등이 지속돼야 한다. 과거 신작들이 초반 반짝 흥행 이후 유지력 확보에 실패했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이온2가 엔씨소프트의 최근 위축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 플랫폼 중심의 고품질MMORPG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IP라는 점도 긍정 요소로 꼽힌다. 특히 대만 출시를 앞두고 현지 시장 반응도 주목된다.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를 기반으로 다시 전성기 청신호를 밝힐 수 있을지는 향후 3개월 동안의 지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초기 성적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장기 업데이트, 유저 유지율, 글로벌 성과가 이어져야 진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아이온2가 엔씨소프트의 반전 카드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LG U+, AI 기반 교사 행정관리 서비스 선포

‘U+슈퍼스쿨’로 공교육 디지털전환  
행정업무 자동화... 교사 역할 집중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으로 공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U+슈퍼스쿨’을 출시하며 교사 행정 관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

U+슈퍼스쿨은 교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차세대 학교 행정관리 솔루션이다.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AI가 자동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솔루션에 적용된 AI 에이전트는 교사의 실제 행정 흐름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생활기록부 작성의 경우, 누적된 학생 데이터를 활용해 학업 성취·활동



사진은 모델이 U+슈퍼스쿨 서비스를 이용하며 학생 성적관리 화면을 살펴보는 모습.

/LG유플러스

내용을 반영한 맞춤형 기록을 자동 생성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록된다는 장점도 있다.

U+슈퍼스쿨은 고교학점제 환경에 맞춰 분반 수업에서 발생하는 출결 관리 문제를 해결한다. 출석부, 출결 신고서, 체

합습 서류 등 출석 관련 문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 결제로 행정 처리 속도를 높였다. 기존 종이 문서로 흩어져 있던 자료는 하나의 플랫폼에 자동 축적돼 교사는 취합·누락 걱정 없이 학생 활동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보안성도 강화했다. U+슈퍼스쿨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IaaS ‘중’ 등급)을 충족한 인프라와 LG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국가·지자체·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춰 민감한 학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줄였다. 모든 데이터는 폐쇄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설계됐다.

/김서현 기자 seoh@

## 크래프톤, 방콕서 ‘PGC 2025’ 열어

배틀그라운드 챔피언 국제대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C 2025’가 지난28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했다고 30일 밝혔다.

PGC는 전 세계 최정상급 배틀그라운드 프로팀이 한 해의 챔피언을 가리는 국제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PGC 2025는 PUBG UNITE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원 월드 투 챔피언’ 슬로건 아래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플랫폼의 글로벌 대회를 하나의 무대로 연결한다.

PGC 2025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린다. 그랜드 파이널은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방콕 시암 파라곤에서 개최되며 총상금은 150만 달러 규모다. 여기에 PGC 2025 기념 아이템 판매 수익의 25%가 상금에 추가돼 전체 상금 규모가 확대된다. 우승팀은 50만 달러의 우승 상금과 함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추가로 확보한다.

이번 대회에는 PGS 포인트 상위 8개 팀과 지역별 포인트로 선발된 24개 팀, 개최국 와일드카드 1팀까지 총 33개 팀이 출전한다. 한국에서는 젠지 e스포츠, 디엔 프릭스, 티원, 배고파, FN 포천, 아즈라 펜타그램 등 총 6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최빛나 기자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스포티파이 혜택 추가

네이버는 스포티파이와의 전략 제휴를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베이직을 추가하고,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까지 연동해 오디오 콘텐츠 경험을 대폭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와 스포티파이는 이용자의 오디오 콘텐츠 이용 범위를 넓히고 멤버십 혜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협업을 본격화했다. 27일부터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에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베이직이 새롭게 합류했다.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베이직은 월 7900원으로 광고 없이 1억여 곡의 음원과 700만여개 팟캐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다.

/최빛나 기자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강세일 프로모션

연말 앞두고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  
7000여개 브랜드, 최대 89% 할인

네이버는 연말 쇼핑 수요에 맞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강세일 프로모션을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전과 패션, 홈데코, 뷰티, 식품 등 7000여 개 브랜드 상품을 최대 89%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연말을 앞두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강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세일은 신학과 바캉스, 연말 등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되는 대표 기획전이다. 올해 강세일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열리며 70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대규모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이번 강세일에서는 LG전자 퓨리케어 가습기 등 계절 가전뿐 아니라 온풍기, 전기매트 등 겨울철 난방 제품을 폭넓게 구성했다. 패딩과 목도리, 장갑 등 방한 패션 상품을 비롯해 이불, 러그, 패브릭 소파 등 겨울 홈데코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선물 수요가 높은 연말 시즌을 겨냥해 뷰티 카테고리에는 산타마리아노벨라, 입생로랑 뷰티 등 명품 브랜드의 공식물 상품을 모은 하이엔드 라인을 준비했다. 정관장과 고려은단 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대표 상품은 네이버 단독 구성으로 판매된다. 케이크와 트리 등 크리스마스 특화 상품 역시 최대 50% 특가로 제공된다.

## IPX, 라인프렌즈 ‘브라운’ 15주년 캠페인

‘프롬 브라운 투 유’ 진행

IPX는 글로벌 IP 라인프렌즈 브라운의 탄생 15주년을 맞아 감성과 관계의 의미를 강조한 ‘프롬 브라운 투 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026년 15주년을 앞두고 전시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브라운의 상징성과 팬 경험을 확대한다.

IPX는 글로벌 캐릭터 IP 브라운의 15주년을 기념한 캠페인 프롬 브라운 투 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브라운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 오리지널 캐릭터 스탬프로 처음 등장했으며 표정을 최소화해 감정을 담아내는 특유의 매력으로 글로벌 팬층을 쌓아왔다. 말없이도 마음을 전한다는 캐릭터성은 브라운이 15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로 자리잡았다.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허그브라운 하우스 팝업은 라인프렌즈 스퀘어 명동



‘허그브라운 하우스’ 테마 팝업이 진행되는 라인프렌즈 스퀘어 명동 내외부 전경.

/IPX

에서 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브라운 15주년 콘텐츠는 브랜드 협업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순차 공개된다. 패션 브랜드 렉토와의 브라운 15주년 에디션,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로파서울과의 브라운 세라믹 컬렉션, 인형·키링 브랜드 오시토이의 브라운 한정 스위트 에디션 등이 준비됐으며 네덜란드 조명 브랜드 미스터마리아와의 두 번째 협업도 12월 중 공개된다.

/최빛나 기자



# “금투협 첫번째 고객은 회원사… 즉시 대응형 회장이 될 것”



인터뷰

이 현 승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자

(前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

재정경제부 정책 설계·집행 경험  
증권사 CEO 등 현장 중심 실무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신설 추진”

자본시장 규제 개편과 연금·세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융투자협회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단순히 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정책 설계 단계에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관·민을 모두 경험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는 “정책과 시장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협회가 실행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시장과 정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1988년 행정고시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입문해 정책 설계·집행을 경험했고, 이후 글로벌 투자는은행과 국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도전하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

/메트로경제

내 증권·운용사 CEO를 두루 거친 이력 때문이다. 그는 “협회는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협회의 첫 번째 고객은 정부가 아니라 회원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급한 고민’이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대형사는 글로벌 확대·발행어음·IMA 같은 성장 과제가 중심이고, 중소형사는 NCR·준법·IT 비용처럼 생

존과 직접 연결된 문제가 더 절박하다”며 “이 간극을 조정하는 역할이 협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가 준비 단계의 요건 정리와 심사 동향 분석, 서류 완성도를 높여주는 사전 컨설팅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해 “연계 제재로 막히는 혁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가장 먼저 정부·국회와 논의하

겠다고 밝힌 영역은 퇴직연금·세제 개편이다. 이 전 대표는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지만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디폴트옵션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 주식형 상품의 매매차익 과세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상품이 연금계좌에선 과세된다. 이 구조에서는 연금자금이 해외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장기 보유특별공제 범위 확대, 청년도약펀드 도입 등 세제 방향도 제시하며 “세금은 투자자 의사결정의 첫 번째 변수”라고 말했다.

모험자본 정책에 대해서는 “모험자본은 단순 재무투자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근본 체력”이라며 조달·투자·회수 단계 모두가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어음·IMA 편종을 벗어나 증권금융·기관투자자·BDC·해외자본으로 자금을 다변화하고, BDC 운용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공공·민간이 함께 만드는 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규정만 고치고 내부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통제는 문화”라고 말했다. 업계 구성원

이 ‘이 행동을 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감각을 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사고이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관리·공유해 “업계 전체의 자정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법·IT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준법 체크리스트 공동화 체계를 통해 “서류만 쌓이는 준법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 환경을 그는 미·중 갈등, AI 경쟁, 초고령화·저성장이 겹친 ‘사방이 편할 게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은행 중심 대출경제에서 투자은행 중심 자본시장경제로 넘어갈 ‘전환의 시간’이라며 협회를 “정책과 시장을 잇는 실행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투협 회장이 된다면 임기를 마친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 “‘이현승 회장 시절,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었다’고 말해준다면 충분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대응형 회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기지가 켜는 코스닥… 내년 ‘1100포인트’ 전망

정부 정책, 기술수출 증가 등 영향  
“우량기업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우량주들, 전망 있는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 십원 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못난이’ 소리를 듣던 코스닥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증권가는 정부 정책 자금과 바이오 등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탈 회복세가 반등 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내년 코스닥이 11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 “코스닥 지수 ‘1100’ 간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63.64%, 코스닥은 34.57% 상승했다. 코스피(11월 28일 지수 3926.59)와 코스닥(912.67) 간 상대강도(코스피 지수를 코스닥 지수로 나눈 값)는 약 4.3배로 역대 최대치(4.6배)에 근접하고 있다.

양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달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9조9214억원 대비 17조4334억원으로 76%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은 6조9702억원에서 9조4795억원으로 36% 늘어났다. ‘불장’의 온기가 코스닥에는 부분적으로 퍼진 모습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강도가 역사적 최고수준으로 확대됐다”며 “2000년 이후 코스닥 대비 코스피 상대 강도는 평균 2.8배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880.06)보다 32.61포인트(3.71%) 오른 912.67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코스닥시장이 ‘1000스닥(천스닥)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적 등 밸류에이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종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모멘텀”이라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벤처와 첨단산업을 경유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코스닥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약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2025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기술수출 금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2026년에도 기술수출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원 증가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11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 부실기업 등 정리 과제

코스닥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과거 일본 증시 사례처럼 부실 기업이 대거 정리될 경우, 900선 초반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이 1000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증권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3단계로 재편하며, 시가총액·유동성 등 상장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요건 미달 상태로 분류돼 하위 시장 이전이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량 기업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이달 6일 코스닥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내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코스피 이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3월 이전상장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좌초됐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기는 기업은 에코프로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 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에셋, ‘CD1년금리액티브 ETF’ 자산 급증

금리 상승세 영향… 11월 5000억 유입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가 최근 CD 1년물 금리 상승세에 힘입어 순자산 1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 순자산은 1조 5309억원이다. 이달에만 약 5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 덕분이다. 27일 기준 CD 1년금리는 2.93%로, 10월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제약이 있는 예금과 달리 유동성도 우수하다. /허정윤 기자

## KB자산운용, 국내 배당주펀드 수익률 최상위

KB연금가치배당 등 1~4위 석권

KB자산운용이 차별화된 배당전략을 바탕으로 배당주 펀드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자산운용의 배당주 펀드 4종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국내 배당주 펀드 151종 가운데 1~4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각 펀드의 수익률은 ▲KB연금가치배당 73.71% ▲KB퇴직연금배당 73.66% ▲KB지속가능배당청년형소득공제 73.42% ▲KB액티브배당 73.19%에 달한다.

KB자산운용은 ▲고배당·저평가 전략

▲배당성향·배당능력 개선 가능성 분석 ▲저성장 시대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선별 투자라는 공통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배당주 펀드를 운용한다.

연금·퇴직연금·청년형·일반 계좌 등 다양한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고배당 상품 라인업을 갖춘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라면 ‘KB 연금가치배당 펀드’,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KB 퇴직연금배당 펀드’, 청년 장기계좌 가입자라면 ‘KB 지속가능배당청년형 소득공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싶다면 ‘KB 액티브배당 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 정부, 첫 대드론 KS 제정 착수 불법 드론 위협에 대응 ‘강화’

국표원, 대드론 표준안 행정 예고  
공공조달 지연 해소, 시설방어 강화  
탐지·식별 장비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실제환경 반영한 통합 시험기준 제시  
내년 상반기 확정, 기업 생태계 기대

미확인 드론의 불법비행·테러 위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드론(Anti-drone) 시스템 도입의 기준이 될 첫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선다.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의 장비 도입이 지연돼 온 만큼, 국가표준 제정이 완료되면 발전소·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일부터 60일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국가표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보완 작업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미확인 드론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주위의 불법비행, 시설침입, 정보수집, 테러위협 등 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성능시험방법이 부재해 장비 간 성능 비교, 신뢰성 검증, 시험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에서 인공지능 전자기스펙트럼 정찰 시스템을 탑재한 드론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도심이나 산악, 시설보호구역 등 실제 운용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비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시험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은 레이더, RF(조종신호) 스캐너, EO/IR(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 등 탐지·식별 장비, 그리고 재머(무선 주파수 무력화 장비)와 같은 무력화 장비의 성능을 실외 환경에서 정량 평가하는 기준을 담았다. 침투 드론에 대한 탐지거리·각도, 추적 성능, 식별 정확도, 무력화 거리 등 시험환경·절차·기록 방식 등도 포함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공항공사, ETRI, 육군 등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했으며, 올해 6월 대테러센터와 국경원 주관 실증시험 등 4회에 걸친 현장 검증을 거쳤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 부재로 인해 공공조달 등 국가중요기관들이 대드론 시스템 구축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추가로 필요한 표준들도 제정을 추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돌입

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장 집중 점검  
신고 외 ‘숨은 체불’까지 전면 조사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 도입 등 박차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1차 조사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신고 노동자의 체불임금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확인한다.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숨은 체불’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을, 2027년까지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와 병행해 ‘사업주 임금 체불 자진신고제’도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정

및 청산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자진 신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보, 지자체와 中企 수출지원 협력 강화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 개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지자체와 무역보험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고, ‘5급 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 중소·중견 기업 수출을 지원한 53개 지자체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으며, 서울시장 등 10개 지자체 담당자에게 수출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했다.

무보는 올해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특례보증지원 등 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사상 최초

로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 절반 이상인 5만1000개사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장진욱 무보 중소기업사업본부 부사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무보와 지자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현장 목소리가 무역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증권사 4곳,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삼성·한투·NH)

노동부, 41개 사업자 대상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개사가 정부로부터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와 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정 평가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99.9% (431조6988억원)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상품 검증 및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두드러졌다.

삼성증권은 디지털본부와 연금본부를 통합해 연금운용 기능을 디지털 기반으로 강화했고, 확정급여(DB)형 퇴직부채 성향을 세분화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역량을 확보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과 검증 업무를 이원화해 결과 신뢰도를 높였다.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의 연금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리테일 어드바이저리 본부’를 신설했다.

한편, 업권별 우수 사업자로는 하나은행(은행업권), 삼성생명(보험업권), NH투자증권(증권업권)이 선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협, 국산 쌀 술·가공식품 200종 한자리

‘K-라이스페스타’ 성황리 폐막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가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국산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을 발굴·홍보하는 동시에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협은 행사에서는 ▲증류주, 막걸리, 약청주 등 국산 쌀로 만든 술 200여종 ▲쌀로 만든 참신한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와인 등을 전시했다.

특히,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막걸리 빚기 체험을 비롯해 ▲황금쌀을 찾아라 ▲우리농산물 푸드아트 대회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술 MBTI 찾기 ▲

주안상 대회 ▲도슨트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농협은 지난 5월 국산 쌀을 이용해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 참여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업체 470여 곳의 출품작 780여 점을 4개월 간 심사했다. 품평회를 통해 7개 부문에서 총 28개 제품을 선정했고,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1점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 2점에 대해 상금(도합 2억8000만 원) 등을 수여했다.

또 수상작 판로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6개소(고양, 성남, 수원, 동탄, 양재, 창동) ▲농협몰 ▲술마켓·술담와 등에서 특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후부, 이달 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생태 핵심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남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II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이곳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



충남 서산시 해미면 순교 성지.

/뉴시스

월암, 서산 한우목장(월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 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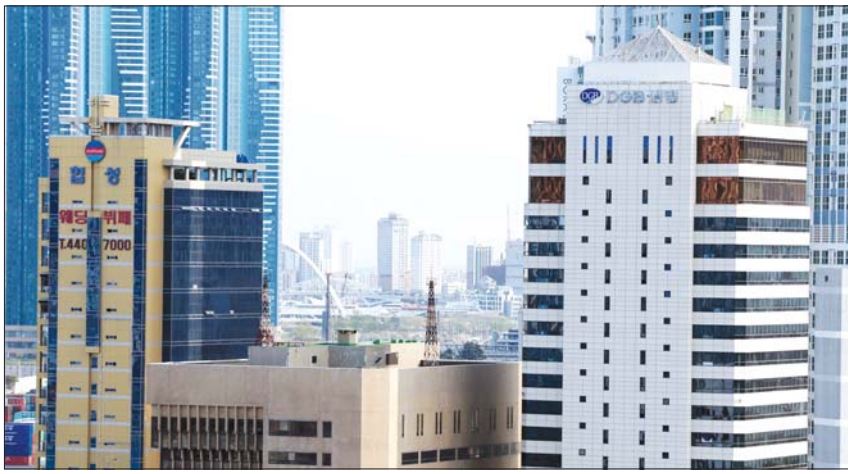
# ‘부산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국가균형발전 시금석”

李 정부 ‘해양수도 완성’ 공약 추진  
특례·인센티브 추가논의 필요성과  
해수부 조직 강화 미반영 지적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청사 건물.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이 름도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경제계도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상의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단순한 특정 지역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규정한 지원과 제도적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상의는 HMM 등 해운 대기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의 성과 핵심으로, 기업 이전의 확산을 줄 수 있도록 특례 및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단체는 “그동안 해양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가 수도권에 머무르면서 현장인 부산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

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해양 행정의 불합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관문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 해양특성에맞춘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환영 입장과 별개로 특별법 후속 대책과 해수부의 조직 강화 및 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담겼다.

대표적으로는 ▲해수부 기능 통합 및 제2차관 신설 ▲대통령실 해양비서관 조속한 임명 ▲해양 공공기관 부울경 전면 이전 ▲대형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유도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 ▲동남권 해양·산업 금융 플랫폼 설립 ▲북항 55보급항 이전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임시청사로 부산 이전을 추진해 오는 23일께 이전을 마무리하고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고창군

## 고창군

### 1500여곳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500여 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게 된다.

군은 내년 국비 12억6000만원을 확보해 43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2층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지원 설비를 결합해 설치하며, 설치비의 최대 88%를 지원하고 군민 자부담률을 20%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 영광군,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 속도

### 11GW급 해상풍력 프로젝트 뒷받침할 전용 항만 조성 구상

전남 영광군이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영광군은 항화도 어촌계와 대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지역산업 연계 방안’ 기본계획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11GW(기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용항만 조성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영광군 관할 해역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일대에서는 총 17개 사업자가 약 1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선 유지관리(O&M) 거점 항만이 필수적이다.

영광군이 항화도항 인근 20ha 부지



영광 약수해상풍력 발전 현장.

에 ‘유지관리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이유다.

클러스터에는 ‘O&M(운영·유지보수) 지원시설’, ‘CTV(승무원 수송선) 접안시설’, ‘인증·교육센터’, ‘홍보·체험관’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한데 묶는 핵심 기능들이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항화도가 전남 북부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대구시, 어르신 4만5174명에 일자리 제공

내년 2243억 투입

대구시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418억원을 증액한 2243억원을 투입해 총 4만517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량활용사업’, 카페 및 음식점 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지역 환경 개선 및 학교 급식지원 등 ‘공익활동사업’,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모집인원은 역량활용사업 1만2850명, 공동체 사업단 2306명, 공익활동사업 2만8937명, 취업 지원 1081명이다. 특히 ‘역량활용사업’은 올해보다 4367명 증가한 1만2850명으로, 51.5% 대폭 확대됐다. 이 사업은 신노

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60세 이상, 월 60시간 근무에 63만4000원(주휴수당 별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근무하고 29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 일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12월1일부터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부산항만公 “부산항, 세계 4위 항만 선정”

메논 이코노믹스 공동발간 보고서

부산항이 전 세계 4위 항만에 선정,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세계 최대 선급기관이자글로벌인증기관인 노르웨이 선급(DNV)과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분석 특화 연구기관인 메논 이코노믹스(Menon Economics)가 공동 발간한 ‘세계 선도 컨테이너항만 보고서 2025’에서 부산항이 세계 4위 항만으로 선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항은 전 세계 160개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한 평

가에서 생산성, 연결성, 지속가능성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상하이, 닝보-저우산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부산항을 ‘중국, 일본,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핵심 연결축이자 1차 환적 허브’로 정의했다.

초대형 선박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운영 체계가 강점으로 꼽혔다. 자동화 시스템과 체인 포털 등 스마트 항만 기술이 항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적 강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북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대응 지시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등 증액 건의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사 법정시한(2일)을 앞두고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상황을 종합 점검하며 전 실·국에 총력 대응 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을 국회 증액의 분수령으로 보고,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도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은 정

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국회에 증액을 건의한 주요 사업은 ▲영일만횡단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1715억원 ▲APEC 레거시사업 ‘문화의 전당’ 14억원 ▲산불피해지 피해복원 300억원 ▲산불피해공동체 회복 거점센터 건립 시범사업 70억원 ▲산림미래혁신센터 조성 4.5억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억원 등이다. 도는 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군산시

### ‘K-씨푸드 선도도시’로 부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K-씨푸드 선도도시로 부상하면서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경영인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현대화 등 선도적인 사업이 추진되며 군산은 수산분야의 대표적 우수사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본관동 신축(2023년)에 이어 건어동이 현대식 시설로 재정비되며 K-씨푸드의 또 다른 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시는 위생·원산지 관리 강화와 이용 환경 개선으로 관광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 김제시

### 농업기술센터 현장행정 강화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며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대에 성과를 냈다.

특히 ‘콩애플’ 논콩산업 거점지구가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로 선정돼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국산콩 산업 기반을 갖췄다.

논콩 재배면적 전국 1위를 달성한 가운데 공익직불금·전략작물 직불금 등 총 707억원이 지급돼 소득안정에도 기여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488명을 도입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도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추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통해 청년농 유입과 미래농업 확산 기반도 강화했다.

/김제(전북)=정훈 기자



# “교촌치킨, 버거로 즐겨요”… 1만원 안팎 ‘식사 시장’ 공략

## 델리 브랜드 ‘소식’ 론칭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가 판교 사옥 1층에 파일럿 브랜드 ‘소식(SAUCIT)’을 선보이며 새로운 식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촌이 34년간 축적해 온 소스 기술력을 전면에 내세워 ‘소스 중심 치킨 델리’라는 신규 포맷을 실험하고, 검증된 모델을 향후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브랜드명 ‘소식’은 ‘소스(SAUCE)’와 ‘It’s Kyochon Difference’를 결합해 “교촌은 소스부터 다르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매장 인테리어는 간장·허니·레드 등 교촌 시그니처 소스 컬러를 반영해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강조했으며, 곡선형 디자인과 오렌지 톤으로 소스의 점성과 풍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메뉴는 버거·샌드위치, 보울, 프라이즈 등 1만 원 안팎 가격대의 ‘한 끼 전문형’ 구성이다. 치킨 패티와 한국식 소스를 조합해 점심·이른 저녁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7종 ‘딥앤딥’ 소스(쌈장 디핑·고추장 크림·허니마요 등)를 통해 메뉴별 최대 56가지



교촌에프앤비 사옥 소식 매장 전경

**버거·샌드위치·보울·프라이즈 등 점심·이른저녁 중심 이용하게 설계**  
**주문·조리·픽업까지 자동화 기반**

**7종 딥인딥 소스로 56개 맛 조합**  
**3만원 구매시 소스추가 동전 제공**

맛 조합을 구현했다. 음료는 스페셜티 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시그니처 메뉴 ‘너티허나라페’ 등 복합 재료 기반의 블렌딩으로 맛의 균형을 강조했다.

운영은 주문부터 조리·픽업까지 자동화 기반으로 구성됐다. QR 주문 이후 튀김·성형·기름떨이 공정이 자동

설비로 진행되고, 서빙로봇과 무인 픽업 시스템을 통해 고객 동선을 최소화했다.

특히 매장 경험 요소로 마련된 ‘소스 자판기’는 소식의 핵심 차별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용 코인을 투입하면 7가지 딥앤딥 소스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증정이 아니라 ‘코인을 넣어 소스를 뽑는 경험’ 자체가 브랜드 기억도를 높이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교촌은 이를 고객 참여형 마케팅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인 디자인과 소스 선택 UI도 별도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뉴 조



소식 매장에서 낮 시간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선보인 메뉴들.

합의 재미를 강조하는 소식의 콘셉트와 맞물려 고객이 자신만의 소스 레시피를 찾고 공유하는 ‘플레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소식은 교촌의 소스 아이덴티티를 한 끼 식사 형태로 구체화한 첫 테스트베드”라며 “점심 시장에서 치킨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만큼, 매장에서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와 반응을 기반으로 운영 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을 통해 검증된 델리 포맷과 K-소스 경험을 그룹 내 다양한 브랜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GS25

## 맥주 ‘데이지에일’ 등 차별화 주류 할인행사

편의점 GS25가 연말 주류 소비 증가에 맞춰 차별화 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오는 3일부터 맥주 2종, 와인 1종, 위스키 1종 등 총 4종의 차별화 주류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화제의 맥주 ‘데이지에일’이 11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식 출시된다. 이 제품은 일본 양조장 히타치노네스트와 지드래곤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이 협업해 제작한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한 3일에는 국내 유통사 최초로 ‘달차맥주’를 출시한다.

와인으로는 댄서 노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그로브빌소비농블랑뉴즈’를, 위스키로는 일본에서 하이볼용으로 인기를 끄는 ‘티처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12월 한 달간 2000여 종의 주류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아사히 생맥주, 하이네켄 등 인기 맥주 17종과 차별화 하이볼 6종을 혜택가에 판매한다.

/손종국 기자



이마트가 고래잇페스타 후반기 행사에 나서며 연말 물가 잡기에 돌입한다.

/이마트

# 이마트, 장바구니 물가 잡기 ‘고래잇 페스타’ 후반전 돌입

내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

이마트가 창립 32주년 기념 대규모 할인행사 ‘고래잇 페스타’의 후반전에 돌입하며 연말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축산, 수산,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대형가전까지 전방위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연말 수요가 높은 축산물 가격을 대폭 낮춘다. 2일부터 4일까지 수입 삼겹살과 목살을 100g당 890원에 판매하며, 미국산 살치살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한다. 7일까지는 브랜드 한우 전 품목을 40% 할인하고, 양념 갈비류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

수산물과 과일도 파격가에 준비했

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황제전복, 세네갈 갈치, 국물멸치를 반값에 판매하며, 오징어, 딸기, 골드키위 등도 이마트 단독 특가로 내놓는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골라담기’ 행사를 통해 혜택을 강화했다. 식용유, 장류, 참치, 치즈, 버터 등 인기 식재료와 미용티슈, 세제, 치약 등 필수 생활용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대형가전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카드로 삼성·LG전자 대형가전을 전액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며, 제휴카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마트 정양오 전략마케팅본부장은 “고객 제일 원칙하에 전략적 가격 투자를 지속해 연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손종국 기자 handbell@

## 신세계 파주 아울렛 ‘겨울왕국’ 변신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 선보여  
센트럴스퀘어 조명 3000개 장식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이 연말 시즌을 맞아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린 이색 크리스마스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곳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매지컬 프로즌 빌리지를 테마로 센트럴스퀘어 일대를 3000개의 조명으로 장식한다. 특히 추운 날씨를 활용한 아동 전용 아이스링크를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한다.

푸드 팝업존에서는 카누 탭바의 커피와 옥회분식, 타이키치도 부스의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시계탑에서는 매일 눈이 내리는 타임 스노우 이벤트

가 진행되며, 조각가 변대용의 북극곰 작품도 전시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노스 중앙광장에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눈 내리는 점등식 행사를 연다.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오르골, 오너먼트 등 소품을 판매한다. 여주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도 대형 트리와 조명으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는 야외형 쇼핑센터의 강점을 살려 오직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풍성한 쇼핑 혜택과 함께 아울렛에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국 기자



CU가 대규모 와인양주 연말축제를 열고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CU

## CU

## 와인·양주 총 179종 63% 할인 프로모션

편의점 CU가 12월 한 달간 와인과 양주 179종을 최대 63% 할인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CU가 지난해 월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와인과 양주 매출은 12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CU는 송년회와 홈파티 수요가 몰리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먼저 샴페인 22종, 고가 와인 14종, 패키지 상품 6종 등에 대해 자체 할인과 네이버페이·토스페이 결제 시 20%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63% 저렴하게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피에르 가스트로’ 샴페인은 정가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자체 와인 브랜드 ‘음mmm!’ 시리즈 인기 상품 10종도 최대 31% 할인하며, 2병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가오는 ‘붉은말의해’ 병오년을 맞아 ‘1865 적토마 에디션’, ‘로셰마 제 말띠 에디션’ 등 패키지 상품도 선보인다.

/손종국 기자

## 일주일간 정부지원 ‘소프라이즈 한우세일’

농식품부, 7일까지 전국서 진행

연말 한우 할인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12월 1일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의 마지막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7일 일주일간 전국 주요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573개소, 주요 온라인몰 등지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설도 등의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

게 구성돼 있다. 단,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매장별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서비스 앱이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540원, 양지는 4120원, 이 밖에 불고기 및 국거리류는 3000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는 예년의 12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10~30% 저렴한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LG생활건강, 올영 어워즈 3관왕 차지

비온드·브이디엘 브랜드 경쟁력 입증

LG생활건강은 뷰티 브랜드 ‘비온드’와 ‘브이디엘(VDL)’이 2025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석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의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가 핸드케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VDL의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과 ‘커버 스테인 하이커버 쿠션’은 각각 베이스 부문 MD’s Pick(앤디스 픽)과 트렌드 부문 ‘Rising Star(라이징 스타)’로 선정됐다.

비온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는 1분당 약 9개가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인기 제품이다. 지난 2005년 4월 출시부터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655만 개를 기록했다.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의 누적 판매량은 2023년 3월~2025년 10월



비온드 클래식 핸드크림 딥 모이스처 / LG생활건강

기준 약 270만 병을 넘어서었다. 특히 2023년 재단장을 거치면서 3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11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LG생활건강의 탄탄한 제품력을 알아봐 주고 구매해 준 고객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HLB에프앤비, ‘홍삼빌 호텔’ 재단장

반려동물 친화 설계… 특수 서비스 제공

HLB에프앤비가 전북 진안에 위치한 ‘홍삼빌 호텔’을 반려동물 친화 시설로 재단장하며 특수 관광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삼빌 호텔의 전체 40개 객실 가운데 일부를 반려동물의 안전과 투숙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반려동물 동반 객실’로 선보인다. 반려동물의 관절 보호를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고급 에어사워기, 반려동물 전용 어메니티 등이

구비됐다.

호텔 실내외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 시설과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또 진안의 천혜 자연까지 더해져 반려동물 세대가 최적의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HLB에프앤비는 반려동물 전문 인력도 고용했다. 홍삼빌 호텔 전체 임직원은 ‘반려견 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리 전문가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전문성을 갖춘 특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미장센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 출시

삼푸·트리트먼트·오일세럼 등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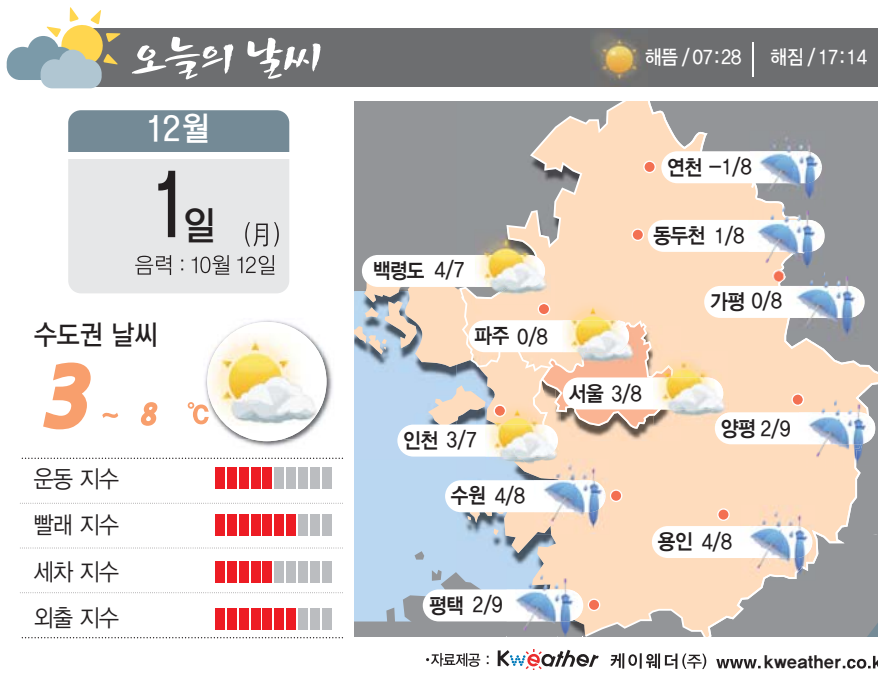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헤어 패션 브랜드 미장센에서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장센 프로틴 테라피 클리닉 20000은 고영양 제품군으로 집에서든 살롱 수준의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쿡에서 추출한 저분자 단백질 성분 ‘뉴트리-소이 프로틴’ 복합물을 2만 ppm 함유해 손상된 모발에 즉각적인 부드러움과 윤

기를 선사한다.

이번 신제품은 풍성한 거품으로 행구는 순간까지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삼푸’, 영양감을 급속 충전하는 ‘트리트먼트’, 고급 광채를 갖춘 ‘오일세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트리트먼트는 삼푸, 오일세럼과 함께 3단계로 사용했을 때 그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향취와 골드 색상 제품 디자인이 고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통증 관리 격차 해소’ 보고서 발간

# ‘아세트아미노펜’ 안전성 재확인

타이레놀 등 광범위하게 사용  
주요 진통제 대비 신체 부담 낮아  
“권장용량 지키면 장기 사용도 안전”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 용량을 지킨다면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진통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타이레놀은 접근성이 높지만, 그동안 간독성(약물에 의한 간의 손상)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30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은 최근 발간한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통증 관리 격차 해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 용량을 지키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할 경우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진통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의료진 등이 참여해, 각국 임상 환경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활용하는 실제 경

험과 전문적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타이레놀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보다 효과가 낮다는 인식과 달리, 기저질환 있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반태현 교수는 “만성 신장질환자 같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신장에 포함 기저질환을 동반하거나 고령인 환자군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 중 하나로,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북경대학병원 리앙 첸 교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NSAIDs보다 부작용 위험이 낮아 고령자나 심혈관, 위장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마운트알베르니아병원 호콕 유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출혈 위험

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아세트아미노펜이 권장된다”며 “반면 NSAIDs는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백서는 주요 진통제 계열인 아세트아미노펜, NSAIDs,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약리적 특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위장관·심혈관계·신장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NSAIDs는 위장관 출혈,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높으며, 오피오이드는 의존성 및 호흡억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86년부터 경증~중등도 통증 치료 시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 치료제로 권고해왔다. 미국노인의학회(AGS)와 미국심장협회(AHA) 역시 고령자 및 심혈관질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한미약품, 차세대 항암 혁신신약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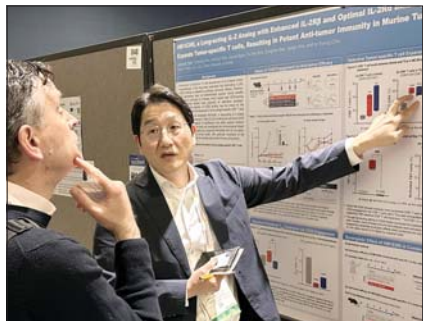
‘HM16390’ 4건 포스터 발표  
전신독성 반응 저감 기전 규명

한미약품이 기존 전임상 연구에서 약성 중앙이 전부 사라지는 ‘완전관해’를 입증한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진전된 성과를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렙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과 등 4건을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IL-2(인터루킨-2)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차세대 IL-2 결합체 기반 면역항암제로, 한미는 독자 플랫폼 기술인 ‘렙스커버리’를 적용한 치료제다.

현재 승인된 치료제인 유전자 재조합 IL-2(aldesleukin)는 혈관누출 증후군과 사이토카인방출 증후군 등 심각한 부



한미약품 R&D센터 최재혁 그룹장(오른쪽)이 지난날 5~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렙스 IL-2 아날로그(HM16390)’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작용이 수반된다. 한미약품의 HM16390은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항종양 효능과 안전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16390이 종양이 아닌 혈중에서만 조절 T세포(Treg)를 일시적·선택적으로 증가시켜 과도한 면역반응을 완화함으로

써 전신 독성 반응을 줄이는 기전을 직접 규명했다. 다른 발표에서는 HM16390에서만 ‘종양 특이적 CD8+ T 세포(TST)’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활성화된 형태로 T 세포 표면에 PD-1을 발현하는 특징이 확인됐다. 안전성은 물론 항종양 효능에도 기여하는 근거를 입증해 차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은 HM16390을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서 단독 투여 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약물로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HM16390 단독 투여 및 키트루다 병용 투여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군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 HLB제약, 에독사반 등 5개 제네릭 의약품 생동성 입증

펠루비프로펜, 몬테루카스트 등 대상

HLB제약은 경구용 항응고제 ‘에독사반’의 퍼스트 제네릭(최초 복제약)을 포함해 올해 총 5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판정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약물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펠루비프로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프란루카



스트’,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몬테루카스트’ 등이다.

해당 5개 약물 성분의 합산 시장 규모가 약 5000억원에 달해 HLB제약은 생동성 입증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엔잘루타마이드’ 제네릭 품목허가도 추진

하고 있다. 향후에는 항암제 제네릭 의약품 확보에 중점병원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박재형 HLB제약 대표(사진)는 “의약품 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제네릭 개발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항암제 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2021, 나무옆의자)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공연문의 02-332-4902





#### 메인비즈협회-경북도,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28일 경주 황룡원에서 경상북도와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오른쪽)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 롯데마트, 인니 이주노동자에 겨울철 필수품 전달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7일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55명에게 겨울철 생필품이 담긴 기프트박스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 진주대 준법지원본부장(왼쪽)과 이억배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



#### SK바사, '바이오산업의 날' 산업부 장관표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바이오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과 인력양성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발전 부문은 배정진 엘 하우스(L HOUSE) 운영지원실장(왼쪽)이, 인력양성 부문은 김창호 피플팀장(오른쪽)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 유한양행, '혁신형 제약기업' 복지부장관상

유한양행이 지난 27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액라자 성과를 인정받았다. 액라자는 유한양행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사진은 조국제 유한양행 대표(오른쪽)가 수상받고 있는 모습.

/유한양행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경제조정실장 김진

#### 부음

▲김기숙(89)씨 별세, 박민(전 KBS 사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박미라, 박미원, 박미진 모친상, 김홍경 시모상, 김홍수, 김성천 씨 장모상=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용인공원, 발인 12월 2일 오전 6시 (02)3010-2000

## 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로 필수의료 부문 격려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 계승  
소외된 이웃에 인술 펼쳐온  
8명 의료인 선정해 수상

대우재단이 '제5회 김우중의료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2021년에 제정됐으며 고(故)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30년간 진행한 대우재단의 도서오지 의료사업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올해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는 최명석 심장혈관흉부외과의(신안대우병원 원장), 위상양 내과의(前 장수군 보건의료원 원장), 전진동 산부인과 의(미즈메디병원 진료부장) 3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선정됐다.

최명석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는 18년간 신안 비금도와 도초도에 거주하는 섬 주민 약 6300명의 생명을 지켰다. 특히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를



최명석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상양 내과의



전진동 산부인과

위한 나르미션, 닥터헬기 등 응급환자 이송 시설 도입을 적극 제안하며 골든 타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 신안군과 협력해 의료진이 섬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국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의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위상양내과 의사는 장수군과 임실

군 요청으로 20년간 네 차례 보건의료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주민 약 5만 명의 건강을 돌봤다. 재임시 위상양 의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했다.

올해 7월부터는 전주 대자인병원에 재직하며 40여년간 축적한 민관의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 권

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전진동 산부인과 의사는 지난 20년간 1만여 건의 분만을 집도하며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구했다. 365일 24시간 대응 가능한 응급분만 시스템을 운영한다. 수도권 서부지역 병원들과 함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대우재단은 이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仁術)을 펼쳐온 의료인을 선정해 김우중 의료인상, 의료봉사상, 공로상을 수여한다.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은 "김우중 의료인상이 5년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자 고민했다"며 "특히 올해는 인구가 감소한 의료 취약지와 섬처럼 고립되어가고 있는 필수의료 부문을 눈여겨 살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LG전자, 임직원 김장나눔 봉사활동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 실천  
저소득 장애인 가정 300곳에 전달

LG전자가 임직원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2025 L G전자 임직원 김치특독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라이프스굿 봉사단'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서울시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300곳을 위한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갔으며, 일부 가정을 방문해 전달과 안부 확인을 진행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160여 명에게도 김장 김치와 수육 등으로 구성된 나눔 식사를 제공했다.

LG전자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김치특독' 1대도 기증했다. 해당 제품은 씽큐(ThinQ) 앱 기반 AI 맞춤보관 기능을 갖췄으며, 냉장과 상칸을



LG전자 임직원들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이 서울 저소득 장애인 가정 300곳을 위한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 /LG전자

분리해 김치·냉장·냉동으로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다용도 분리벽 구조를 적용했다.

김장 나눔 활동은 LG전자가 2012년부터 13년째 이어온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LG전자 '라이프스굿 봉사단'은 이번 활동 외에도 청소년 진로 멘토링, 장애 아동·청소년 특식 지원,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몽골·미얀마 등 해외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 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

새로운 기업 이미지 공개도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먼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가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고 고객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업무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

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이 이뤄졌다.

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현 선임이 받았다. 수석 도전사례 최우수상은 전사 품질문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품질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참메드 경영관리실 품질경영부 QRA1팀이 받았다.

아울러 이날 새로운 기업 이미지(CI)가 공개됐다.

새 CI는 '무궁(無窮)의 건강, 100년의 신뢰'를 상징한다. 동그란 원 안에 다섯 개 꽃잎 무궁화에서 영감을 얻은 오각형을 새겼다. 그 중심에는 나침반을 형상화했다. 인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혁신'으로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구현한 것이다.

/이청하 기자

## 시몬스, 실내 공기질 안전성 최고등급

UL 그린가드서 골드 인증 획득

시몬스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30일 시몬스에 따르면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시몬스가 충족한 골드 등급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시험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다. 이는 의료시설이나 학교 등 민감한 실내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의미한다.

시몬스는 최근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과 업계 메가히트 매트

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등 시판되는 매트리스 전 제품에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 외에도 국내 침대 브랜드 중 유일하게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 ▲환경부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시판 중인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국제표준(ISO 12949) 및 국내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으로 시험한 난연 매트리스로 생산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 “자연으로 가는 길이 곧 수업… 하루가 여유롭고 풍성해져”

Q 르포 | 농촌유학, 제주 평대·성읍 초등학교 가보니

“Hello everyone. Are you ready to begin?”, “Yes, I’m ready!” 지난 28일 원어민 교사와 마주 앉은 8명의 아이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작은 교실을 채웠다. 이곳은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평대초등학교. 제주 본토 학생 4명과 서울에서 온 유학생 4명이 반반 섞인 2학년 교실이다.

“Could someone read this in Korean?”. ‘supplies’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교사의 질문에 하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한다. “‘학용품’이요.” 하린이는 지난 9월 2학기 제주도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30명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교사와 눈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수업의 중심에 선다.

같은 시각 옆 3학년 교실에서는 출판 기념회가 한창이다. 한 반 전원 8명이 한 달 동안 제주 해안의 연안습지와 모래지형을 탐구하며 기록한 생태체험을 엮어 만든 책 ‘쉼모살, 어디까지 가봤니?’를 소개하는 자리다. “연안습지는 바닷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해안가에 형성되는 습지로, 밀물과 썰물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해수면이 오르내리며 생기는 웅덩이와 갯벌이 특징입니다.”

하린이의 오빠 하진(3학년)이다. 하린이네 네 남매 하윤(5학년), 하진(3학년), 하린(2학년), 하준(1학년)이는 이번 학기 모두 함께 제주로 내려왔다. ‘농촌유학’을 위해서다.

도시 학생들, 농어촌 학교로 전학 생활 배우는 공교육 체류프로그램

참여학생 2021년 1학기 81명에서 올해 2학기 443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간 누적참여자 2670명 이르러

예산부족 지원기간 1년→6개월로 학부모들 “최소 1년이상 확대” 건의

◆도시 떠나 작은 학교로…갈수록 증가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일정 기간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지역에서 생활하며 배우는 공교육 체류 프로그램이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문을 연 농촌유학은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전북·강원으로 확산됐고, 올해 2학기 제주도까지 합류하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참여 학생 수도 2021년 1학기 81명에서 올해 2학기 443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간 누적 참여자가 2670명에 이르렀다.

제주 평대초는 올해 2학기부터 서울 학생 12명을 받아들이며 전교생이 74명으로 늘었다. 특히 2학년·3학년은 각 8명 가운데 절반이 서울 출신 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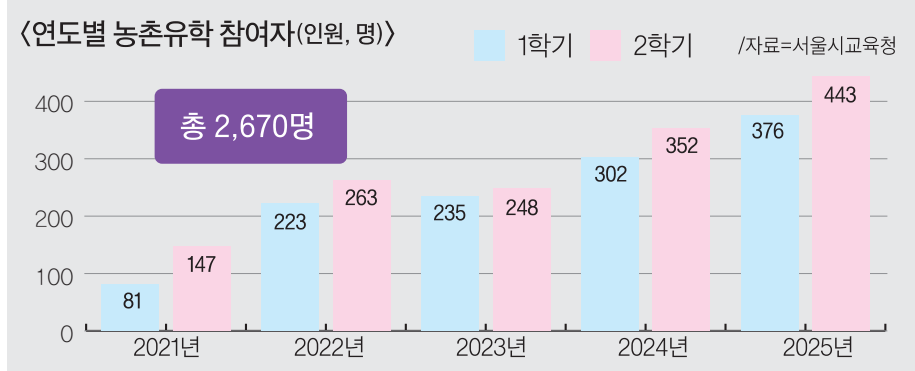
평대초는 ‘글로벌 역량학교’로서 원어민 협력수업을 운영하고, ‘평대마을과 세계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글로벌 특색과목을 둔다. 앞서 하린이네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영어 수업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다. 1학년은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주 17시간 동안 원어민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고, 2학년은 주 5시간, 3~4학년은 3시간, 5~6학년은 4시간동안 원어민 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한다.

승마·수영·서핑·캠핑·보드·숲체험 등 글로벌 생태스포츠 활동도 일상처럼 이어진다. 말레이시아와 대만 학교와의 교류로 세계를 향한 시야도 자연스레 넓어진다. 들과 바다가 생활권인 학교에서 ‘자연·글로벌·스포츠’가 동시에 이어지는 셈이다.

평대초 교사 송명혜 씨는 “자연으로 가는 길이 곧 수업”이라고 했다. 실제로 아이들은 바닷가 해안사구에서 식물과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마을 작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수업 뒤엔 바로 운동장이나 들과



제주 평대초 3학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생태체험 책 ‘쉼모살, 어디까지 가봤니?’를 들고 발표하고 있다. 한 달 동안 바닷가 연안습지를 탐구한 결과물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역량학교’ 평대초등학교 주 4~17시간 ‘원어민 협력수업’ ‘교실 밖 체험 많아 일상 다채로워’

‘제주형자율학교’ 성읍초등학교 “메뚜기를 보고 도망가던 아이들, 이제는 잡으러 다닐 만큼 달라져”

으로 뛰어나간다. 자연과 일상이 이어지는 이 구조가 평대초 학생들의 배움을 깊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확인되는 변화… ‘작은학교’의 재발견  
농촌유학이 만드는 변화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읍초등학교에서도 확인된다. 이곳은 제주형자율학교(제주문화학교)로 운영되며, 민속마을과 연계한 탐구 수업과 ‘성읍사이로 제주봄’ 같은 문화·생태 프로그램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강수연 성읍초 교장은 “처음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 메뚜기를 보고 도망가던 모습이 이제는 잡으러 다닐 만큼 달라졌다”라며 “농촌유학생 8명, 전입 2명까지 늘면서

작은학교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성읍초 학부모들도 농촌유학 이후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고 마을을 탐구하며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늘었다”라며 “전교생이 서로 이름을 다 알고, 6학년 언니·형들이 저학년들을 안아주는 관계의 깊이도 서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친구들은 기존 제주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됐다. 제주에서 살아온 평대초 한 학부모는 “아이 친구 폭이 좁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다양성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들이 갈등을 마주하며 관계를 깊게 맺는 법을 배운다”며 작은 학교 장점을 강조했다.

◆“6개월은 너무 짧다”…대책 보완 필요

하지만 제도 개선 요구도 크다. 당초 1년 운영을 목표로 설계됐던 농촌유학은 시의회 예산 부족으로 현재 6개월만 지원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는 “6개월은 너무 짧다”며 지원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미취학 자녀까지 포함한 가족 단위 지원 ▲부모 일자리 대책 ▲부모 대상 제주어·문화 교육 등 지역 정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 1년 이상 연장을 원하는 가정이 많다”며 “예산이 시의회에서 줄어 6개월만 지원하고 있지만, 전면 1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부모들이 제주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이 어려워도 농촌유학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제주 성읍초 ‘벨롱벨롱 꿈자랑 발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화이팅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주 평대초 학생들이 해양 생태·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해변에서 서핑 기초훈련을 하고 있다. /평대초



제주 평대초 3학년 학생들이 한 달간의 연안습지 탐구를 엮어 만든 책 ‘쉼모살, 어디까지 가봤니?’.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백두산서 태극기 ‘펼럭’ 휘두른 韓유투버…중입국 거부당해  
▲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객, 경제난 불구 수십억 달러 소비 /사진 뉴스시스

▲또 브래드 피트 ‘로맨스 스캠’…1억 넘는 돈 송금한 스위스 여성  
▲다가수 퇴장·공연 취소 잇따라…中, ‘한일령’ 본격화하나

▲美, 한국인 비즈니스 비자 심사 확대…조지아 사태 수습  
▲“미국 무인기 또 예멘 공습, 알카에다 대원 의심 2명 살해”





교촌에프앤비  
파일럿 브랜드  
'소식' 선배  
L1

metro®

Life

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 발표  
L4



# ‘미스김’부터 ‘벌거벗은 공주님’까지 30년간 한국사회 구조적 차별 조명



새벽을 여는 사람들

## 권영임 작가

작가 권영임은 1993년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부터 2025년 ‘벌거벗은 공주님’을 공개하기까지 30여 년 시간을 관통하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조명하고 있다.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는 사무직 여사원이 직장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고발 에세이다. 고졸 출신의 대기업 골드 미스가 주인공이며 개인 가치관 문제,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폭넓게 다룬다.

‘벌거벗은 공주님’은 9편의 단편이 담긴 소설 집이다. 표제작 벌거벗은 공주님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이 겪는 압박, 불안 등 인간 삶의 굴레를 드러내며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균형을 짚어낸다. 작가의 시선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문학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영임 작가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 차별을 말할 수 있는 사회, 그러나 충분치 않다.

권영임 작가는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등은 사회적 약자였으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또 30년이 흐른 현재, 사회적 약자의 삶은 크게 달라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차별이라는 말조차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시대에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약자의 목소리는 더 멀리,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감수성도 확실히 성장했다. 제도 또한 이전보다 단단한 형태로 존재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여전히 약자의 삶은 비슷한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차별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함의 대상이 되는 현실 또한 남아 있다.

## 권 작가, 사회적 불균형 주목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들 대변 “기록과 기억을 통해 위로 전해야”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깊이에 있다. 즉 불평등을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바꾸려는 의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대 사회가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있다면 불평등을 개인 능력 부족으로 돌려버리는 오래된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폭력이며 이 강 너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뀐 척하는 사회’에 머무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폭력 속 개인 내면을 읽는 방식

권영임 작가의 작품에는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그릇된 가치관, 거짓 명예와 부도덕함, 성희롱과 성폭력, 직장 내 비리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모두 각박한 현실에서 개인의 삶과 내면이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사회적 폭력은 거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방식은 지극히 은밀하다. 그래서 인물의 말보다 침묵의 공기를 먼저 읽으려 한다. 숨을 고르는 순간, 말하지 않은 문장, 눈길이 머무는 자리, 그 미세한 흔적들이야말로 한 인간의 진실을 드러낸다.

서사를 만들 때도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켜내고 자신을 회복하려 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가 개인을 부수고 간 틈 사이에서 다시 살아보려는 마음의 움직임과 그 작은 떨림의 시작을 오래 바라보며 기록해 왔다. 나의 글은 어떤 피해의 나열이 아니라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에 대한 기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 2019년 도서출판 바람꽃 설립 ‘미스김 시집이나 가지’ 개정판 준비 “글은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몸짓”

◆ 문학이 건네는 위로: 기록과 기억

권 작가는 문학의 가치를 하나는 기록하는 일,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일, 두 가지로 정의한다.

그는 “독자가 ‘당신의 문장 덕분에 버텼다’고 말해줄 때, 현대 사회에서도 문학은 여전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순간엔 작가에게 가장 정치적인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절망 속에 아주 작은 틈을 내어 그 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힘,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학을 통해 불평등, 차별, 소외된 목소리를 기록하고 잊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자가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은 위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문학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진 못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인식만으로도 인간이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창작에서 오는 성취감

권 작가는 ‘한국평화문학’에서 침묵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15인 공동소설집 등도 선보였다.

그는 “누군가가 제 문장에서 자기 삶의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해줄 때, 글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 하나의 증언이 되었다고 느낀다. 책의 판매량이나 화제성보다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나를 책상 앞으로 이끄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권 작가는 ‘미스 김, 시집이나 가지, 그 후 30년! 개정판’도 준비하고 있다. 30년 전 ‘미스 김’의 외침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강력한 공명으로 다가오듯이 그의

끈질긴 시선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멈추지 않는 증언이 될 것이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속 보이지 않는 노동, 특히 가족돌봄 노동과 감정 노동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 중년 이후 여성의 서사, 즉 나이 들의 존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쓰고자 한다.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교차적 불평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젠더 갈등, 계급화, 세대 차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 이주 현실 등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억압의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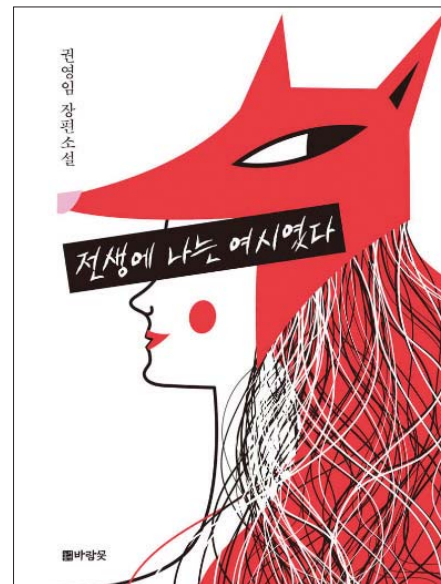
가장 궁극적으로 쓰고 싶은 것은 약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를 약자로 만드는 세계의 민낯, 그 세계에 균열을 내는 인간들의 끈질긴 존엄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영임 작가는 15년 넘게 편집자, 편집장으로 일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도서출판 바람꽃’을 설립했다. 이후 시, 소설, 에세이 등 문학 관련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소설집 ‘벌거벗은 공주님’.



장편소설 ‘전생에 나는 여시었다’ /바람꽃

## 메트로 한줄뉴스



▲ ‘4관왕·MVP’ 폰세, 오늘 홀로 미국행…MLB 계약 임박한 듯  
▲ ‘꿈의 무대’ 올림픽 앞둔 임해나-권에 “밀라노 행 비행기 타야 실감날 것 같아” /사진 뉴스스

▲ ‘로드 투 북중미’ 홍명보호, 월드컵 좌우할 베이스캠프 선정 ‘고심’  
▲ 메시의 인터마이애미, 뉴욕시티 5-1 완파…MLS컵 결승 진출

▲ ‘2024년 MLB 세이브 1위’ 헬슬리, 볼티모어와 2년 412억원 계약  
▲ 여자 핸드볼, 앙골라에 23-34 패배…세계선수권 2연패